Vol. 633
2021. 12.13-19

# 공감

gonggam.korea.kr
스캔하면 〈공감〉 누리집을 만납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모두를 위해 접종 동참을”

**특집**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리 보는 2022년_18 12~17세 이상반응 0.25%… 대부분 발열·두통 등 경미_16 환자 골든타임과 구급대원 안전 모두 지켰다_44
**특별기획** 맛있는 정책이야기 ❼ 신한류는 어떻게 세계를 매혹시켰나_48 ‘4월 위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까지… “오직 평화”_52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미소’를 만나 ‘사유’에 잠기다**

12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설치된 ‘사유의 방’에서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두 점이 신비로운 미소로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11월 12일 개관한 ‘사유의 방’은 관람객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며 사랑을 받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 내가 기대고 살았던 말들

● 나태주 시인
풀꽃 시인. 한국시인협회장. 100여 권의 문학 서적을
발간했으며 충남 공주에서 풀꽃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세상은 예나 이제나 바람 부는 들판이고 풍랑이 드센 바다와 같다. 옛사람들도 그런 세상을 견디며 살았고 오늘의 우리도 그렇고 미래의 사람들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허허로운 이 세상. 제대로 살아가려면 마음속에 폿대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든지,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든지 마음의 다짐 말이다. 그런 걸 좌우명이라 했고 인생관이라 불렀다. 인생의 지향점이나 방향 설정 같은 것이다.

나의 삶에서 그것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살아온 세월이 짧지 않으므로 시기별로 다르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다. 이를테면 고달픈 인생살이 속에 내가 기대고 산 말들이다. 젊은 시절엔 그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정도가 나름대로 인생관이거나 삶의 태도였을 것이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까지 생겨난 중년 무렵부터 나의 좌우명이 분명히 생겨났다. "빈이무첨(貧而無諂)하고 부이무교(富而無驕) 하라." 풀이하면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아첨하지 말고 나중에 부유하게 되더라도 교만하게 살지 마라." 〈논어〉, 〈명심보감〉에 있는 문장이다. 무작정 이 말이 마음에 당겼다. 워낙 사는 형편이 궁색했고 살아가는 날들이 힘겨웠던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아예 입에 달고 살다시피 했다. 밥상머리에서 얼마나 자주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지 우리 집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도 내가 한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로 기억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우선은 급해서 이런 말을 내 가슴에 안았지 싶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빈이무첨보다 부이무교가 더 실천하기 어려운 생의 덕목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다음으로 내가 마음에 담았던 말은 '날마다 이 세상 첫날처럼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날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처럼 하루하루를 정리하면서 살자'다. 이 말 또한 입으로는 쉬워도 생활에서 몸으로 실천하기는 지난한 말이다. 지키기 어려운 약속 같은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말을 금과옥조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고자 노력했다.

이제 나이 들어 나의 좌우명은 조금 더 바뀌었다. 그것은 '밥 안 얻어먹기와 욕 안 얻어먹기'다. 이 말은 더욱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다. 사람이 정면으로 얻어먹는 것이 밥이라면 뒤로 얻어먹는 것은 욕이다. 늙은 사람은 절대로 그 두 가지를 얻어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안 되도록 자신을 다잡고 애쓰며 살아야 한다.

이제 더 가슴에 안고 살 말이 없을까 생각해 본다. 그것은 '거절하지 않기와 요구하지 않기'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산다. 자기 편의로 그러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할 때 세상이 조금씩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닐까? 실천하기는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남은 생애 나는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싶다. ◉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 봄으로 채워지는 마음의 공간

● **인중 이정화** 〈일희일비하는 그대에게〉 저자, 드라마 및 영화 〈여배우〉 서예대필, 경기대학교 예술대학원 서예문자예술전공 석사



# 공감

훈민정음체의 의미를 되살리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 제호입니다.

Vol. 633
2021. 12.13–19

**나태주의 '풀꽃 편지'**
01 내가 기대고 살았던 말들

02 **공감 글판**

**국정종합**
06 "종전선언은 비핵화 첫걸음… 국제사회 동참을"

**힘내라 대한민국**
08 로켓처럼 휙 날아온 상담 문자
우울·불안 로켓처럼 싣고 가요
12 접종자 재택치료시 4인가구 136만 원 지원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 10일→7일로 줄어
16 12~17세 이상반응 0.25%… 발열·두통 등 경미

**특집_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리 보는 2022년**
20 코로나19 뚫을 신기술 여기 다 모였네!
24 "내년 소비 트렌드는 '나노사회'… X세대 주목하라"
26 "탄소중립·에너지전환 등 미래·환경가치 주목 좋은 정책, 디지털 소통으로 더 널리 알려야"

**2022년 예산**
30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살피고
지역화폐 늘려 골목상권 살린다
32 더불어 사는 세상 위한 '민생지원' 눈에 띄네
35 눈에 띄는 탄소중립·한국판 뉴딜 예산은?




사진공동취재

표 지 이 야 기

## "모두를 위해 접종 동참을"

코로나19 환자와 위중·중증 환자 등 전반적인 코로나19 발생지표가 악화되면서 방역당국이 12월 한 달을 3차 접종 집중시행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3차 접종이 18세 이상 전 국민 접종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의 접종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 정부는 대체로 '접종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접종이 진행 중인 12~17세의 경우 12월 8일까지 0.25%가 이상반응을 신고했고 발열, 두통 등 심각하지 않은 이상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리더기를 이용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44

**연재_ 공감 경제 ⑫**
36 내년 예산이 많아 보이지 않는 이유

**홍화정 만화_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㊽**
38 우리는 함께 변화하고 있어요!

**2050 탄소중립**
40 탄소 저장 공간 탈바꿈, K-탄소중립 선봉장

**대한민국 혁신 국민이 누린다 ❶**
44 환자 골든타임과 구급대원 안전 모두 지켰다

**특별기획_ 맛있는 정책이야기 ❼**
48 신한류는 어떻게 세계를 매혹시켰나

**국민 소통 시리즈_ 문재인정부, 이렇게 일했습니다 ❶**
52 '4월 위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까지… "오직 평화"

**연재_ 한반도 평화 ⑪**
56 종전선언을 위한 물물교환

**연재_ 한국의 멋 ❼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58 산 자여 따르라!

**연재_ 한국의 맛 ❼ 냉면**
60 추운날 먹어야 제맛인 '평냉'

**연재_ 박인권의 '명화 다시 보기' ㊶**
**에드가르 드가 '발레 수업'**
62 전광석화처럼 낚아챈 찰나의 움직임

64 **참여공감**

62



**발행일** 2021. 12.1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황희
**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4
**제작협력** 한겨레미디어
**인쇄** 팩컴코리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851-0183

-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12월 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회식을 열고 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평화·안보 관련 최대 회의로 2021년 회의는 우리나라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최해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라는 주제 아래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틀간 ▲평화의 지속화 ▲파트너십·훈련·역량 강화 ▲임무수행능력 ▲민간인 보호 및 안전 등 4개의 의제별 논의를 통해 평화유지활동(PKO) 강화를 모색하고 회원국들은 관련 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제는 평화유지활동의 굳건한 지원국이 돼 10대 기여국으로 자리하고 장관회의를 주최했다"며 "여타 분쟁국에 일상의 평화를 향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길 바라며 서울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공동의 연대와 의지에 기반해 미래의 수요에 부응하는 PKO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와 공약을 결집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평화유지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며 회원국들의 기여 공약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엔의 미래 청사진인 스마트캠프 모델 제시와 최우선 소요인 헬기 공

# "종전선언은 비핵화 첫걸음 국제사회 동참을"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환영사를 전했으며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UN) 사무총장도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평화와 재건을 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해 평화구축과 분쟁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으로써 종전선언에 국제사회가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아시아 최초 개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유지구상(A4P) 및 평화유지구상 플러스(A4P+)를 통해 보다 강력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평화유지활동 구축에 대한 유엔의 노력을 소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도 각각 개회사를 통해 환영인사와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공약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유엔의 도움으로 평화를 재건한 우리나라가 이여 등 실질적 기여를 통해 국제평화 활동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요 주제인 평화유지활동의 기술과 의료역량 구축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서울 이니셔티브는 평화유지활동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지원이 필요한 우선 분야 9개항을 제시, 회원국들의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단 기간 무역 1조 달러… 올해는 무역의 해"**

문 대통령은 12월 6일 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 및 사상 최대 무역액·수출액 달성 등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수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고 있는 무역인들을 격려하고 경제 반등의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우리 경제사에서 2021년은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는 올해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올해 대한민국의 수출 규모는 6300억




12월 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으로 축사를 하고 있다. | 외교부

**"우리나라는 평화와 재건을 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다."**

달러, 무역 규모는 1조 2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모두 사상 최대"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최초 사례"라며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부터 코로나19까지 연이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무역인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 '개 식용 종식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12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인 정광호 교수가 맡았으며 관련 단체 및 관련분야 전문가, 정부 위원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2021년 9월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9월 27일 김부겸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도 개 식용에 대한 단계적 정책 수립을 통한 축소를 내걸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 뒤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돼 왔고 이날 사회적 논의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정광호 위원장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 식용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위원들에게 개 식용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줄 것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

조계완 기자

# 로켓처럼 휙 날아온 상담 문자 우울·불안 로켓처럼 싣고 가요




## 코로나19 극복기 마음건강 방역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와 대면 활동 제약, 경제적 타격 등으로 심리적 불안과 우울을 호소한다. 이른바 '코로나 우울'이 늘어나는 때 거리두기, 손 씻기, 실내 환기 등 물리적 방역만큼 중요한 게 정신건강 방역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에선 각종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경기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안산센터)의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 '마음건강 로켓처방'(로켓처방) 사례는 단연 눈에 띈다. 안산센터는 로켓처방으로 보건복지부 '2021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 프로그램 및 우수 기관 공모'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정신건강 방역 우수 사례로 로켓처방 서비스를 만나봤다.

### "형식적 아닌 진심 어린 공감·처방에 감탄"

안산시에 사는 김 모 씨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다. '별거 아니야.' '내가 유난스러운 걸 수도 있어.' '굳이 병원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부정적인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자신의 고통을 외면했다.

그러다 안산센터의 로켓처방 서비스를 만났다. 이는 마음건강 문제와 고민을 접수하면 정신건강 전문가가 24시간 이내로 맞춤형 답변과 처방을 제공하는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다. 안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한 뒤 김 씨의 마음은 많이 달라졌다. 그는 "상담사가 신체와 정신은 하나라고 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가지 생각에 과하게 몰두하면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사실 형식적인 답변이 올 것으로 지레짐작했지만 진심 어린 공감과 처방이 담긴 답변에 놀랐다. 그는 "마음이 힘든 다른 이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은 서비스"라고 칭찬했다.

### 누리집에 고민 등 접수하면 24시간 내 답변

로켓처방 서비스는 피시(PC)나 휴대전화로 마음건강 로켓처방 누리집(rocket.ansanmind.or.kr)에 접속한 뒤 각종 마음건강 상담 분야와 최근 내가 느낀 감정 종류 등을 선택하고 현재 고민을 작성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고민 작성 뒤 긍정·명상·여가·오감·운동·호르몬 처방 가운데 최대 두 가지를 선택하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증진 활동을 즉시 처방해준다.

예를 들어 명상 처방을 고르면 '마음챙김' 등을 활용한 명상법과 다양한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명상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작성한 맞춤형 답변이 24시간 이내 문자로 온다. 고민 내용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평가되면 2차 상담을 권유받고 안산센터 내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로켓처방 누리집에 후기를 남긴 이들에겐 '마음건강 로켓처방 오감키트'(오감키트)도 배송한다. 상자에는 액자와 연필,



1




1 마음건강 로켓처방 누리집에 후기를 남긴 이들에게 배송하는 '오감키트'. 액자, 연필, 족욕제 등 선물이 가득 들어 있다. 2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팀원들이 센터 안에 있는 직업재활 카페 '이음'에서 마인두 캐릭터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혜경 실무팀장, 변지우 상임팀장, 이영훈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왼쪽부터).

목공 스피커, 족욕제, 비타민, 스트레스 볼 등 각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맞춤한 정성스러운 선물이 가득 담겨 있다. 김 씨의 경우 마음건강 로켓처방 1주년 베스트 후기로 뽑혀 '마인두 굿즈'도 받았다.

오감키트와 마인두 굿즈에 등장하는 안산센터의 정신건강 캐릭터 '마인두(MINDU)'도 흥미롭다. 이는 '마음'을 뜻하는 'MIND'와 '만두'의 합성어로 '마음' 그리고 '마음을 빚어준다' '긍정으로 꽉 차 있다' 등 중의적 뜻이 담긴 캐릭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에선 각종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경기 안산시의 '마음건강 로켓처방' 사례는 단연 눈에 띈다.**

우울, 불안, 두려움, 무서움 등 부정적 감정은 우리도 모르는 새 갑자기 확 올라오곤 한다. 이럴 때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전문가와 상담하고 싶지만 당장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대면 방식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해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등 편견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누구에게도 말 못 하고 '코로나 우울'을 홀로 견디는 이들도 많다.

### 고민 내용 따라 맞춤형으로 상담 처방

대면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며 익명성은 보장하고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은 높일 만한 서비스는 없을까? 로켓처방은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됐다. 변지우 상임팀장은 "장소, 시간 등 상황에 방해받지 않고 다양한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 즉시성·접근성 있게 상담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3 경기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4 안산시 곳곳에서 마음건강 로켓처방 서비스를 홍보하고 현장에서 고민엽서함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차량 '마음쏙카' 5 카페 '이음'에 마련된 고민엽서함

2020년 2월 개발에 착수해 그해 5월 22일 서비스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2021년 12월 8일 기준 2만 3000여 명이 로켓처방에 접속, 4300명이 고민 상담 답변 서비스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코로나19 시대 로켓처럼 등장해 상담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속 걱정과 불안을 로켓처럼 싣고 가는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 다른 정신건강 서비스와 차별화된 이 서비스만의 특장점도 있다. 안산센터 측은 정신건강 상담, 일상생활, 자존감, 대인관계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맞춤형 고민 상담으로 접근해 거리감을 좁혔다는 점, '마인두'라는 정신건강 캐릭터로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했다는 점 등을 손꼽는다.

여가, 여행, 명상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법 등을 제안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음식을 만들어봤어요", "자연 속에서 운동했어요" 등 시민들은 상담에 따라 실천한 것을 사진 후기로 올리기도 한다.

시민들은 로켓처방에 고민을 남기며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경험도 한다. 변 상임팀장은 "평소 일기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고 하는 이유는 글로 생각을 정리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객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내 문제를 바깥으로 꺼내놓는 순간 이제껏 엄청나게 커 보였던 문제들이 사실은 별거 아닐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등 환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고민을 적어 보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많이 해소된 느낌"이라고 후기를 남긴 시민도 많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힘들다면 반드시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리면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로켓처방을 이용하며 상담 요청 24시간 안에 문자 답변이 온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워한다. 이 답변이 참 정성스럽게 쓰였다는 걸 알고 다시 한번 놀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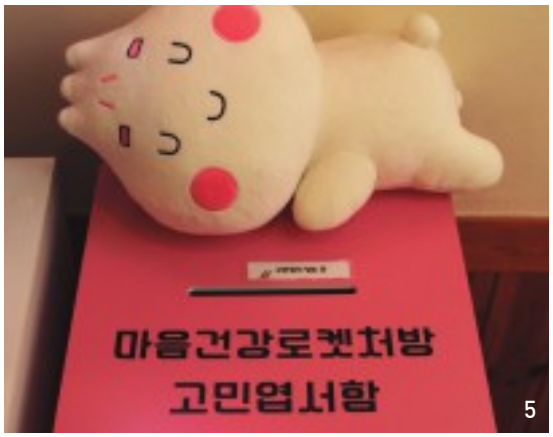
### 온라인 생소한 이들 위해 오프라인 엽서함도

상담 답변은 로켓처방 실무를 담당하는 이영훈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박혜경 실무팀장의 검토 등을 거친 뒤 최종 전송한다. 미리 짜둔 정형화된 답변을 복사해 붙이는 방식이 전혀 아니다. 이 복지사는 "고민 내용, 상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따라 어떤 상담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 맞춤형으로 준비한다"고 말했다.

실무진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역시 서비스 이용자들의 감동적인 후기가 올라올 때다. 박 실무팀장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잘 극복할 용기가 생겼다' 등 후기가 올라올 때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가장 뿌듯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로켓처방에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문제 유형은 기분 문제(19%), 자존감(15%) 순이다. 이들은 이런 문제로 우울(18%), 불안(14%) 등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이용자는 20~30대가 가장 많으며 40대, 10대


4



5

이용자가 그 뒤를 잇는다.

안산센터 측은 온라인 플랫폼이 다소 낯선 연령대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고자 센터 내 직업재활 카페, 단원보건소 등에 '오프라인 로켓처방존'도 설치했다. 로켓처방존에 놓인 고민엽서에 손 글씨로 고민을 적어 고민엽서함에 넣으면 역시 24시간 안에 문자로 맞춤형 답변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아이 넷에 부모가 함께 사는 한 6인 가구는 코로나19로 힘들던 차 오프라인 로켓처방존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 부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였고 청소년기 자녀들은 그 나이에 경험하는 부모와 갈등, 학업 고민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이들은 고민엽서에 각자 고민을 작성하고 맞춤형 처방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더 많은 이들 이용했으면'… 전국에 보급**

안산센터 앞에는 '마음쏙카'라고 적힌 차량이 서 있다. 안산시 곳곳에서 로켓처방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현장에서 고민엽서함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차량이다. 안산센터는 2021년에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우울, 불안, 스트레스 지수 등 자신의 정신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 '지수야! 안녕?'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안산센터 사례를 보며 '나는 그곳 시민이 아니니까 이용할 수 없겠지…'라며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안산센터는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로켓처방을 전국 16개 시·군·구에 보급했다.

변 상임팀장에게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힘이 되는 한마디를 부탁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나만 유독 힘들어하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멘털이 약한가?' 하는 생각으로 자책하거나 위축돼 있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 감정은 지금 이 상황에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표현이 덜 되느냐, 더 되느냐의 차이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이고 이 또한 지나가니 용기를 내세요. 만약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힘들다면 반드시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국 지자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리면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 김청연 기자, 사진 곽윤섭 기자

## 국민 마음건강 체계적·전문적 심리지원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합동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해 다양한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심리지원 사업은 2020년 9개 부처 52개에서 2021년 12개 부처 72개 사업으로 늘었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비대면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의 사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한 전 국민 심리지원은 계속된다. 복지부는 코로나우울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격리자·대응인력,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청년·여성·대응인력 등 대상별 코로나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리상담 직통전화(1577-0199),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 심리지원과 마음안심버스 등을 통한 찾아가는 심리지원도 강화한다.

6월 30일에는 5개 국립병원 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출범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제적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사회재난 시 국민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심리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트라우마센터는 현재 수도권(국립정신건강센터), 영남권(국립부곡병원), 충청권(국립공주병원), 호남권(국립나주병원), 강원권(국립춘천병원)에 설치돼 있다.

# 접종자 재택치료 시 4인 가구 136만 원 지원
#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 10일→7일로 줄어

##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재택치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생활비를 지원한다.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하느라 생업·학업에 곤란을 겪는 데 대한 보상 차원이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은 제외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월 8일 정례브리핑에서 "가족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추가적인 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를 예를 들면 그동안 재택치료자(입원 동일)에 한해 90만 4920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됐다. 여기에 46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접종완료자에 한해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사유에 따른 미접종자, 18세 이하 청소년 역시 가족 수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예방접종에 대한 거부감으로 접종을 미루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재택치료자로 분류되면 추가 지원금은 받지 못한다. 기존 90만 원가량의 생활지원비만 나온다.

이와 함께 현재는 가족이 진단을 받을 경우 동거인은 10일간 외출이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7일로 줄어든다. 동거인은 8일째부터 출근·등교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역시 접종을 마친 동거인에 한해 적용되며 미접종자나 불완전 접종자(1차만 접종했거나 2차까지 접종했지만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는 8일째부터 10일간 추가 격리된다. 중수본은 또 "현재는 격리 중 외출이 불가능하지만 재택치료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와 약 수령 시 외출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 요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정부는 동거인 격리 등으로 인한 학습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중수본은 "학생 격리 시 학습 지원 방안을 교육부와 논의 중이며 노동자 격리 때 병가와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 2022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를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할 예정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 사적모임 제한

| | | 1단계 일상회복 | 12월 6일~2022년 1월 2일 |
|---|---|---|---|
| 사적모임 인원 규모 | 수도권 | 10명 | 6명 |
| | 비수도권 | 12명 | 8명 |

### 방역패스 확대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없는 미접종자

| | 1단계 일상회복 | 12월 6일~2022년 1월 2일 |
|---|---|---|
| 식당·카페 미접종자 허용 인원 | 미접종자 최대 4명 | 미접종자 1명만 허용 |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 기존 | | | 적용시설 추가 | | |
|---|---|---|---|---|---|
| •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 노래(코인)연습장 | | • 식당·카페 | • 멀티방(오락실 제외) | • 파티룸 |
| •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 + | • 학원 등 | • 피시방 | • 도서관 |
| | • 목욕장업 | | • 영화관·공연장 |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 마사지·안마소 |
| | | | • 독서실·스터디카페 |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 방역패스 확대

| | 1단계 일상회복 | 2022년 2월 1일~ |
|---|---|---|
|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 범위 | 만 18세 이하 | 만 12~18세 (만 11세 이하 예외) |

**내년 초 경구용 치료제 고위험 재택치료자 처방**

재택치료의 안착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택치료 추진체계도 함께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2022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를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소아·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를 설득하고 학생들의 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제한 등 방역 강화 대책이 시행된 가운데 12월 5일 낮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사적모임 제한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 한겨레

접종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있다면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점전담병원 2곳 추가… 치료병상 600여 개 설치**

정부가 위중·중증 환자의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2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총 4곳으로 확대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추가 지정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에는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을 포함한 코로나19 치료병상 600여 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지정된 병원은 경기 남양주 한양병원, 혜민병원으로 병상 전체를 코로나19에만 집중해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충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11월 30일 대비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00개, 감염병전담병원 930개 등 총 1304개 병상을 확충했다.

전국의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154개에서 1254개로, 중증 환자 병상은 485개에서 138개(28.5%)가 늘어나 623개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1만 899개에서 930개(8.5%) 늘어 1만 1829개로 집계됐다.

박 총괄반장은 "이렇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감염과 중증 환자 숫자가 많아지면서 병상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도 중증 환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모임 등 약속을 최대한 줄이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2차 접종 효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줄었기 때문에 3차 접종을 필수 접종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지원금, 영세·중소 가맹점서 80.5% 사용**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과 이의신청 처리를 마감한 결과 12월 8일 기준으로 4302만 6000명의 국민에게 10조 7565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가구수의 86%(2320만 가구 중 1994만 3000가구)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국민지원금의 80% 가량이 연 매출 규모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조치가 6개월 연장돼 2022년 6월 말까지 이어진다. 다중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연장된다.**

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지원금의 지급수단별 비율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이 7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17.5%와 선불카드 10.4% 순이었다. 이의신청 등을 통해서는 30만 8000명에게 769억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46만 1000건이었다. 사유별로는 건강보험료 조정 19만 건(41.2%), 가구구성 변경 16만 7000건(36.3%), 해외체류자 귀국 2만 8000건(6.0%)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 개시 후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지급액 9조 2197억 원 중 90.7%인 8조 3656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0조 6795억 원으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등도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하게 90.7%가 사용됐다고 가정하면 모두 9조 6906억 원이 지역경제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 정책 담당자는 "2020년 5월에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이번 국민지원금도 지급 이후 두 달 만에 90%가 신속하게 소비되면서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6개월 재연장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조치가 6개월 연장돼 2022년 6월 말까지 이어진다. 금융위원회, 전 금융권과 관계 기관은 12월 7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29일 시행된 이번 방안은 두 차례 연장돼 2021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현재까지 상환이 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635억 원, 건수로는 3만 6000건이다.

우선 개별 금융사가 취약 채무자에게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 기한이 2022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가계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채무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두 차례 연장한 데 이어 특례 신청 기한이 2022년 6월 30일까지 재연장된 것이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2022년 1월 1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로 연체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향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중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연장된다.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이 대상으로 소득·재산 규모를 확인해 총채무금액과 비교해 지원한다. 연체 우려 시에는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하고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시에는 원금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12월부터 상시 제도화돼 연체 발생 시점,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이찬영 기자

# 12~17세 이상반응 0.25%… 발열·두통 등 경미

##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 필요한 이유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 코로나19 환자와 위중·중증 환자, 검사 양성률 등 전반적인 코로나19 발생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방역당국이 12월 한 달을 3차 접종 집중 시행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령층과 우선접종 직업군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3차 접종이 18세 이상 전 국민 접종으로 확대됐다.

보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신규 환자까지 늘어나면서 성인의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돌파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어 성인은 3차 접종에, 소아·청소년은 기본접종에 적극 나서달라"고 권고한다.

12월 6일 현재 2차 접종자는 4134만 188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80.5%다. 3차 접종자는 395만 6401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7.7%다. 연령대별 3차 접종률은 70세 이상은 40%대지만 60~69세 7.0%, 50~59세 4.2%, 40~49세 4.7%, 30~39세 9.7%, 18~29세 1.5%에 그친다.

질병관리청은 "이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추가접종이 아닌 3차 접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3차 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접종이 필요한 이유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접종 효과 감소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최은화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돌파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증가했다. 추가접종은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보호해준다"고 말했다.

### 3차 접종 후 이상반응 증가하지 않아

소아·청소년의 접종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이상반응 우려가 나오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 정부는 대체로 '접종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앞서 접종을 마친 고3 학생 44만 명 가운데 0.45%가 이상반응을 신고했고 발열, 두통 등 심각하지 않은 일반 이상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접종이 진행중인 12~17세의 경우 12월 6일까지 0.25%가 이상반응을 신고했다.

3차 접종 후 부작용 등 이상반응 발생률도 2차 접종 후와 비슷한 정도다. 최 교수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2차 접종과 3차 접종의 간격을 12주로 했을 때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차이가 없다고 발표했다"며 "국내에서도 2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본 결과 이상반응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3차 접종의 단기 효과도 입증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연구 결과 3차 접종 후 12일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2차 접종을 한 사람과 비교해 3차 접종자의 확진율은 11배, 중증화율은 약 20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예방접종은 병원균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고 표준예방접종도 여러 번 하는 경우가 있다. 3차 접종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높아진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B형 간염은 3회 예방접종을 하고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같은 예방접종은 5회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8주간(10월 2일~11월 27일) 12세 이상 환자(10만 7296명)를 보면 미접종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돌파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어 성인은 3차 접종에, 소아·청소년은 기본접종에 적극 나서달라."

군 34.2%, 불완전접종군(1차 접종자와 2차 접종 이후 14일 미만 경과자) 11.3%, 접종완료군(2차 접종 이후 14일 이상 경과자) 54.3%, 추가접종완료군 0.2%로 확인된다. 이는 3차 접종으로 돌파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11월 말 기준으로 기본접종 후 돌파감염 추정 사례(누적치)는 국내 접종완료자 4000만 5274명 중 0.18%인 7만 2105명이다. 반면에 3차 접종 후 돌파감염 추정 사례(누적)는 3차 접종완료자 104만 3919명 중 172명(0.017%)에 그쳤다. 이 중에 위중·중증 환자는 1명, 사망자는 없었다.

**감염 뒤 완치자도 예방접종 권고**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대상자도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을 통해 유도되는 면역반응이 자연 감염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자연감염에 의해 면역력이 형성됐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재감염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이후 완치자가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 완치된 상황에서 접종한 대상자보다 재감염의 위험이 약 2배 더 높다"고 말했다.

접종률이 아직 낮은 소아·청소년은 12월 첫 주에 18세 이하 환자 수가 하루 평균 700명대에 진입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소아·청소년 접종도 시급한 상황이다. 12월 8일 기준으로 12~17세 1차 접종자는 133만 7880명으로 해당 인구의 48.3%, 2차 접종자는 86만 4940명으로 31.2%다. 16~17세 1차 접종자는 65만 3569명, 2차 접종자는 58만 8673명이고 12~15세는 1차 접종자 68만 4311명, 2차 접종자는 27만 6267명이다.

방역당국은 "15세 이하 연령군에서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접종완료율이 60%대까지 상당히 높아진 16~17세군은 예방접종 효과로 환자 발생이 둔화되는 등 접종 효과가 뚜렷하다"며 "소아·청소년들이 감염 위험 차단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기본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권고했다.

최은화 교수는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은 성인에 비해 중증 혹은 사망 위험이 낮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드물게 중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또 감염으로 인한 격리, 교육기회 감소, 정신건강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아·청소년의 접종 후 이상반응은 다른 연령층과 유사하고 예방접종 이득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접종할 경우 16~18세 감염예방 효과는 95.8%, 중증 예방과 사망 예방 효과는 각각 100%로 확인됐다. ◉

조계완 기자

## 주요국 "청소년 접종이익이 위험보다 커"

세계 각국 정부는 대체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청소년 및 아동 백신 접종을 광범위하게 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 5세 이상에 대해 접종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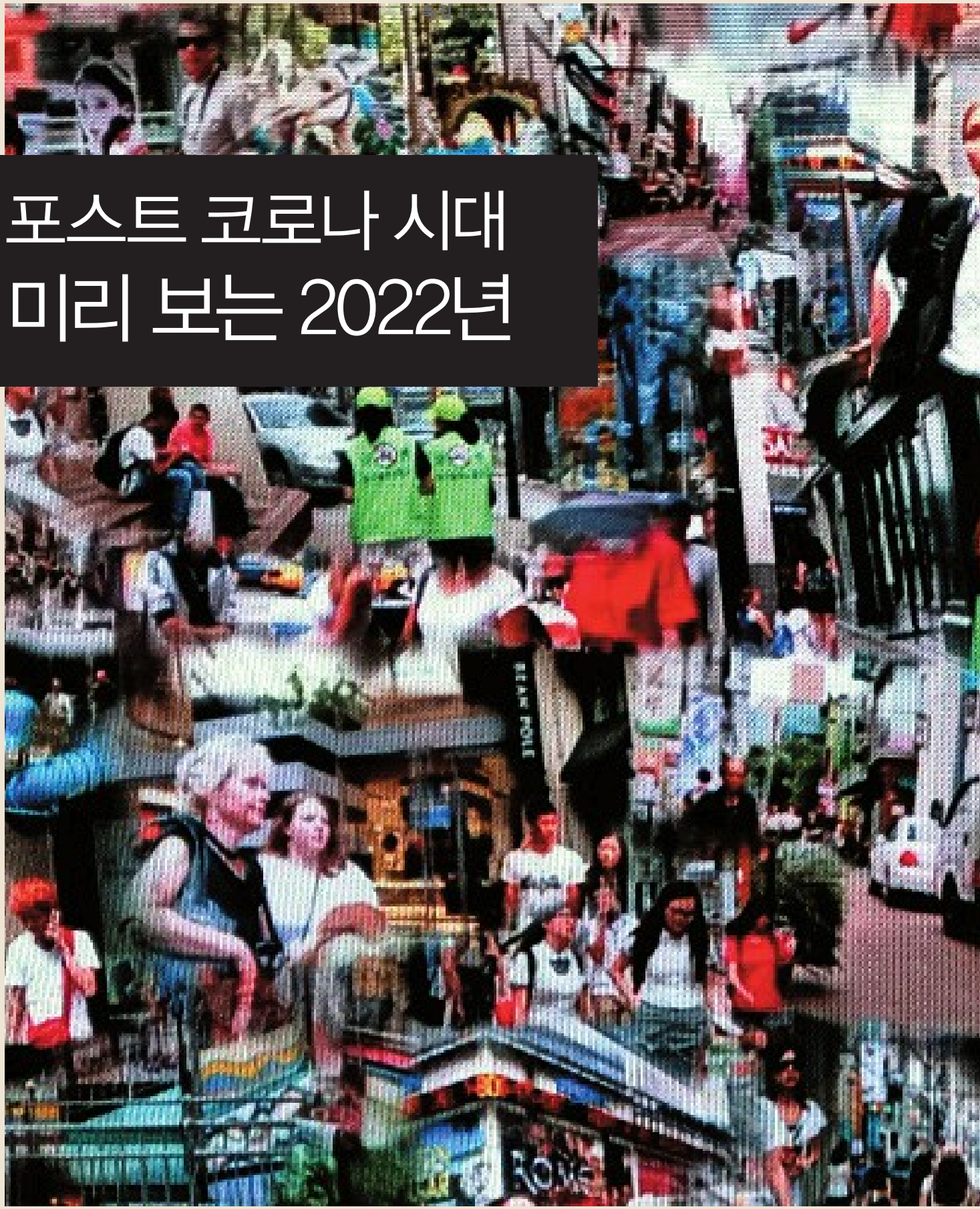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청소년 화이자 백신 접종 뒤 "심근염과 심막염 발생 보고 사례가 있으나 드물다"며 "한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뒤 12~17세 심근염 발생은 100만 회 중 54회에 그친다"고 밝혔다.

대만은 12~17세 청소년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12월 20일 시작한다. 대만 당국은 ▲코로나19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타날 수 있고 ▲1차 접종 뒤 생성된 항체가 점점 약해지고 ▲백신 접종 뒤 부작용 발생 확률은 여전히 매우 낮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소년 백신 2차 접종 재개를 승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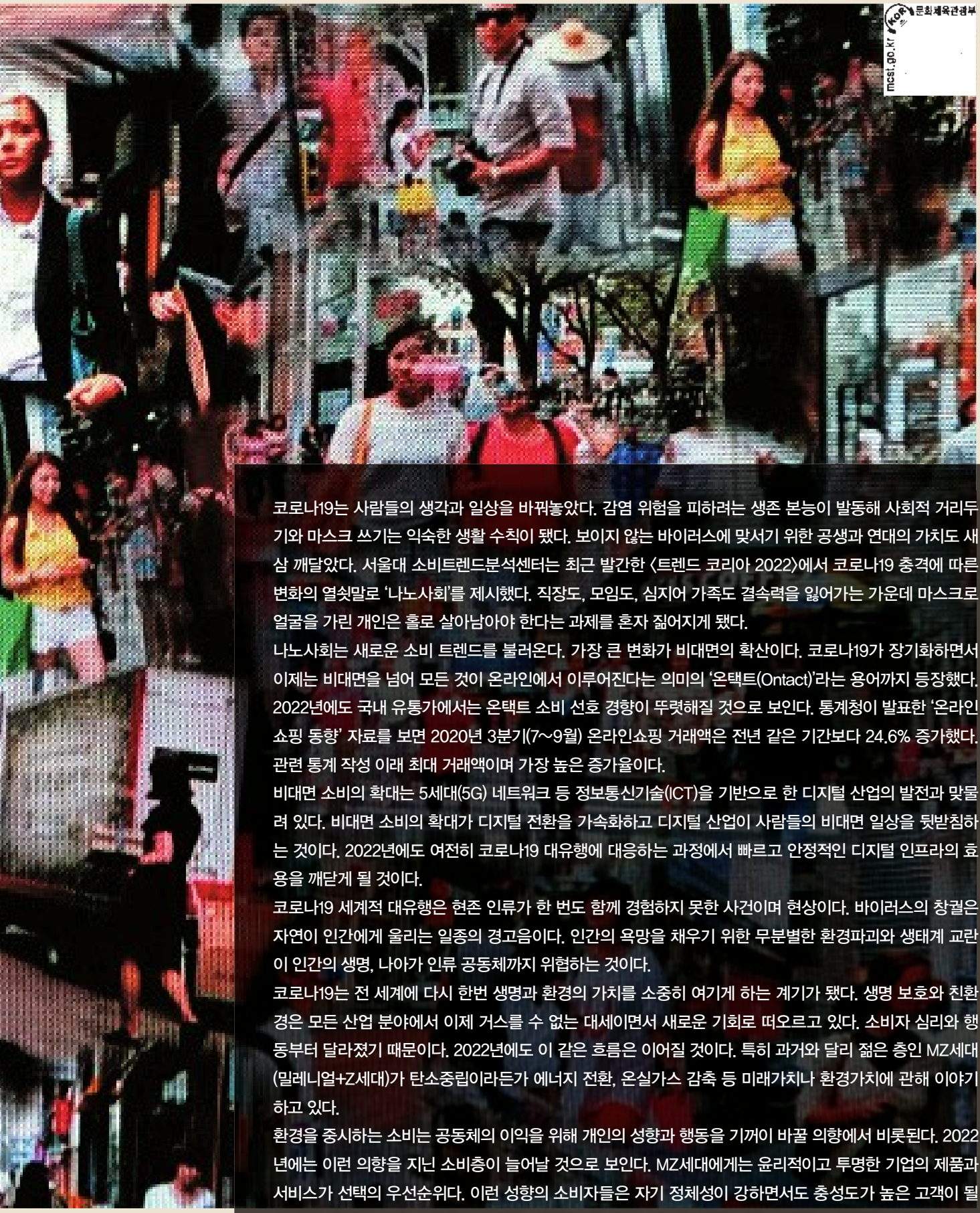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12월 13일부터 5~11세도 화이자 백신 보급을 시작했다.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는 16~17세는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을 권고하고 12~15세는 1회 접종을 권고한다.

앞서 9월 초 브라질에서는 16세 청소년이 화이자 1차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브라질식약위생감시국(Anvisa)은 이는 해당 청소년이 이전부터 앓았던 혈전 증상 때문이며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 미리 보는 2022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이음마당에 전시된 노정하 사진작가의 작품 '고스트–오 마이 스위트하트!(Ghost–Oh My Sweetheart!)'. 마스크 없이 세계 각국의 거리를 활기차게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바람을 읽을 수 있다. | 한겨레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생각과 일상을 바꿔놓았다. 감염 위험을 피하려는 생존 본능이 발동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는 익숙한 생활 수칙이 됐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맞서기 위한 공생과 연대의 가치도 새삼 깨달았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최근 발간한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변화의 열쇳말로 '나노사회'를 제시했다. 직장도, 모임도, 심지어 가족도 결속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개인은 홀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과제를 혼자 짊어지게 됐다.

나노사회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불러온다. 가장 큰 변화가 비대면의 확산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제는 비대면을 넘어 모든 것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온택트(Ontact)'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2022년에도 국내 유통가에서는 온택트 소비 선호 경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를 보면 2020년 3분기(7~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6%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거래액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비대면 소비의 확대는 5세대(5G)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맞물려 있다. 비대면 소비의 확대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산업이 사람들의 비대면 일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2022년에도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의 효용을 깨닫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은 현존 인류가 한 번도 함께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며 현상이다. 바이러스의 창궐은 자연이 인간에게 울리는 일종의 경고음이다.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교란이 인간의 생명, 나아가 인류 공동체까지 위협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하는 계기가 됐다. 생명 보호와 친환경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면서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 심리와 행동부터 달라졌기 때문이다. 2022년에도 이 같은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젊은 층인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탄소중립이라든가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등 미래가치나 환경가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성향과 행동을 기꺼이 바꿀 의향에서 비롯된다. 2022년에는 이런 의향을 지닌 소비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MZ세대에게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선택의 우선순위다. 이런 성향의 소비자들은 자기 정체성이 강하면서도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될 수 있다. 충성도 높은 고객층이 두꺼운 기업일수록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MZ세대의 목소리를 통해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는 2022년을 두루 살펴본다.

# 바다 쓰레기 수거 로봇부터 우주 숙성 와인까지 코로나19 뚫을 신기술 여기 다 모였네!

## 코트라 〈2022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발간

"우저(Woojer·이스라엘의 신생기업)의 음향-촉각 변환 기술처럼 기계 장비로 촉각을 모방해 전달하는 것을 햅틱(haptic) 기술이라고 한다. 햅틱 기술을 통해 사람들은 공간을 공유하지 않고도 촉감을 활용해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게 됐다. 햅틱 기술은 전통적 산업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도 기대해볼 만하다. 인테리어, 가구, 모빌리티 등에 적용할 경우 신체와 접촉하는 모든 제품에 기술을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미'있는 체험을 하는 것을 넘어 기존 제품을 더 '안전'하게 만들거나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가가치도 만들어낼 수 있다."

### 최신 글로벌 사업 트렌드 36가지 소개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최근에 내놓은 〈2022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의 '하이퍼 엔터테인먼트(Hyper Entertainment)' 장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코트라 텔아비브무역관에서 작성한 이 현지 보고서는 소리의 촉감까지 전달하는 웨어러블 제품 '우저'를 소개하고 있다. 소리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가볍고 활동성이 좋은 조끼 형태의 웨어러블 오디오 장비 우저를 착용하고 휴대전화 등 오디오파일을 재생하는 기기와 블루투스로 연동시키면 소리가 몸에 진동 형태로 자극을 줘 몰입감을 높이고 현실감을 더한다.



우저 누리집

이 책은 전 세계 84개국, 127개 도시 해외무역관에 주재하는 수백 명의 코트라 직원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직접 눈으로 포착하고 취재한 '지금 한창 뜨거운' 시장과 상품·서비스를 담았다. 해외무역관 직원들이 발굴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사업(비즈니스) 사례들로 3차원 가상 세계 메타버스 속 시장부터 우주에서 숙성시킨 와인까지 신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시장에 접근한 전 세계 비즈니스 최신 흐름을 주목하면 코로나19 위기를 뚫고 나갈 아이템을 만들고 찾아낼 수 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선한 소재들을 한데 모았다.

코트라는 2011년부터 매년 말 '한국이 열광할' 해외시장 트렌드를 담은 세계 트렌드 시리즈를 펴내고 있다. 이번 2022년 트렌드는 최신의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총 36가지를 4개의 큰 주제(치유사회, 미래의 일상, 새로운 놀이, 공존사회)로, 그리고 다시 '마음 케어', '물과의 전쟁', '제로 이코노미' 등 10개의 중간 주제로 각각 분류해 묶었다.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시장에 접근한 전 세계 비즈니스 최신 흐름을 주목하면 코로나19 위기를 뚫고 나갈 아이템을 만들고 찾아낼 수 있다. 코트라 주재원들이 생동감 있게 소개하는 해외 현장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비즈니스 트렌드를 읽다 보면 창업 아이디어가 반짝 떠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치유사회+미래의 일상**



픽사베이

먼저 '치유사회' 주제에서는 '지치고 힘든 사람을 위한 비즈니스: 마음 케어'와 '기술이 대신하는 가족: 가족의 재정의'로 묶인 8개 현장 사례가 소개된다. 심리치료 챗봇 '무드메이트'(민스크), 간편 스마트 실내 정원 '베를린그린'(함부르크), 명상 웨어러블 디바이스 '뮤즈'(토론토), 가상현실로 정신건강을 치료하는 솔루션(실리콘밸리), 두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료 '누트로픽'(시드니), 시니어와 이웃을 연결해 돕는 서비스 '도브리 솜시아드'(바르샤바), 고독경제가 낳은 반려동물 복제사업(시안), 반려로봇 '큐티'(파리) 등을 소개한다.

'미래의 일상' 주제에서는 집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아이디어로 접근한 각국의 사례가 소개된다. 오사카무역관이 전하는 '어드레스'는 전국 어디든 원하는 집(등록 거점)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정액제 다거점 거주 서비스다. 다른 공유 거주 서비스와 다른 점은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전국 어디든 거점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관광지나 인구 밀집지 외에 각지에 다수의 거점이 분포돼 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조음

이와 함께 미래형 전기차 충전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도로 지하 매립식 충전소 '스트리트 플러그'(암스테르담)를 소개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국가가 겪고 있는 전기차 충전 고민을 해결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실리적인 지하 매립형 소형 충전소다. 도로 지하에 매립한 형태라 거리 외관을 해치거나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다. 작은 크기로 주택 진입로나 보도에도 설치할 수 있다. 1만 2500㎏ 하중까지 견딜 수 있다. 비나 눈이 오더라도 물을 빠르게 배출해 충전기가 건조된 상태로 유지된다. 수위가 높아지면 센서로 감지해 장비 전원이 자동으로 꺼진다.

이 밖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조립식 주택(실리콘밸

1



2



1 암스테르담의 도로 지하 매립식 충전소 '스트리트 플러그' 2·3 홍콩 빅토리아 해안에서 운행 중인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 '클리어봇' | 도서출판 시공사 제공

**"해외 현지 조사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이 책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참신한 사업 모형(비즈니스모델)을 탐색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리), 신소재 운동 경기장(프랑크푸르트)이 소개된다. 이어 개인 맞춤형 건강 사례로 ▲시니어를 위한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술(바르샤바) ▲손목에 붙여 건강 상태를 빠르게 점검하는 아이템 웨어옵티모(멜버른) ▲고령자 맞춤 요양 서비스(시드니)를 소개한다.

**새로운 놀이+공존사회**

'새로운 놀이' 주제에서는 우저(텔아비브), 메타버스 속 글로벌 시장(오사카), 공연 산업의 새로운 미래 증강현실(AR) 콘서트(디트로이트)를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 우주에서 숙성한 와인(브뤼셀), 무알코올 주류 개발이 한창인 뮌헨의 신사업, 미래 식량의 대안으로 연구 중인 미세조류 식품(두바이), 천연 원료로 만든 에너지 드링크 사업 성공담(오클랜드) 등이 소개된다.

'공존사회' 주제에서는 물·패션·재활용 분야의 11개 사례를 소개한다. 작지만 똑똑한 인공지능 바다 청소부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물 부족 해결 솔루션을 소개한다. 전기로만 생수를 제조하는 '아크보'(도쿄), 코로나 시대에 수도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친환경 손 씻기 장치 '워시'(타이베이) 등을 소개한다.

홍콩의 도시 앞바다인 빅토리아 하버에는 얼마 전에 하얀 보트 모양의 해양 정화 로봇 '클리어봇'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로봇 앞쪽에 달린 카메라가 해양쓰레기를 감지하면 로봇 내부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작동해 플라스틱 빨대, 배터리, 종이컵, 상자, 신발 등 60종류 이상의 폐기물을 각각 자동으로 분류한다. 1시간 만에 250kg의 부유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다. 개발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람들이 해변에 쌓인 쓰레기를 손으로 직접 수거하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코트라 홍콩무역관은 이 클리어봇 사례를 전하면서 "한국판 해양 정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이 다양한 쓰레기를 더욱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관련 대량자료(빅데이터)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 밖에도 의류 재사용(업사이클링) 시스템(스톡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3



홀름), 옷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추적해 투명하게 보여주는 '파이버트레이스'(멜버른), 성소수자를 위한 맞춤형 수영복 '루비스'(댈러스), 버려진 세면대를 최고급 벽돌로 재활용하는 사례(암스테르담), 접어 쓰는 친환경 물병(불가리아), 쌀겨로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드는 사례(마드리드)가 흥미롭게 이어진다.

**"새 기술과 참신한 비즈니스 모델 탐색"**

코트라 해외무역관은 전 세계 84개국 127개 도시에 분포해 있다. 상주 인원은 현지 채용을 포함해 2000여 명에 이른다. 코트라 누리집에 들어가면 '해외시장뉴스' 안내가 있다. 전 세계 해외무역관에서 실시간으로 작성한 각국 비즈니스 관련 정보 뉴스로 연간 4000건가량 올라온다. 이 책은 해외시장뉴스에서 다룬 사례를 더 상세하게 보완한 것도 있지만 책으로 펴내기 위해 코트라 본부가 해외무역관에 별도로 주문해 작성한 글도 많다.

이 책을 기획한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센터 강민정 차장은 "해외 현지 조사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해외 비즈니스 동향을 접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들이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트렌드 흐름과 환경을 책 한 권에 넣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이 책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참신한 사업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계완 기자



# “내년 소비 트렌드는 ‘나노사회’ X세대 주목하라”

**10개 열쇳말로 읽는 2022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년이 될 2022년은 어떻게 펼쳐질까? 해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예측해온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최근 발간한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변화의 열쇳말로 ‘나노사회’를 제시했다. 2022년을 이끌 10개의 키워드를 지금 만나보자.**

‘TIGER OR CAT’으로 정리된 2022년 10대 소비 트렌드의 뼈대가 되는 열쇳말은 ‘나노사회(Transition into a Nano Society)’다. 지속적으로 개인화되는 시대적 흐름(메가트렌드)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정타를 날렸다. 직장도, 모임도, 심지어 가족도 결속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개인은 홀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과제를 혼자 짊어지게 됐다.

나노사회는 이제 공동체보다 개인을 중시한다. 하지만 이는 한 개인으로 흩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재결합하고 그 재결합한 내 편들끼리 목소리를 높인다. 이는 트렌드를 더욱 미세화시킬 수 있다. 예전에는 대중은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소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개인의 특성이 강해져 소비 형태도 미세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노사회로 인해 필연적으로 귀결하는 결론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절박함이다. 사람들이 금광을 향해 서부로 달려가던 골드러시 시대처럼 좀 더 다양하고 커다란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좇는 ‘머니러시(Incoming! Money Rush)’의 연대기를 쓰게 됐다.

나노사회에서 개인의 생존 문제가 돼버린 코로나19 대유행의 경험으로 많은 사람이 N잡(2개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N’과 직업의 의미인 ‘잡(job)’을 합친 단어로 본업 이외에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N잡이 최근 주목을 끌고 있다)과 투자에 뛰어든다는 것이다. 2021년에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키워드가 ‘겸직허가’, ‘먹방’, ‘창업’, ‘비트코인’, ‘조기은퇴’ 순이라고 하니 사람들의 경제적 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알 수 있다.

예전에는 값비싼 브랜드의 구매로 자기 지위를 드러



**2022년 범띠해 10대 트렌드 ‘TIGER OR CAT’**

자료: 〈트렌드 코리아 2022〉

| | | |
|---|---|---|
| Transition into a Nano Society | 나노사회 | 파편화된 개인들 분열 가속화 |
| Incoming! Money Rush | 머니러시 | 투잡과 투자로 돈 벌러 나선다 |
| Gotcha Power | 득템력 | 돈만으로 못 사는 희소 상품들 인기 |
| Escaping the Concrete Jungle–Rustic Life | 러스틱 라이프 | 도시 속에서 시골의 여유를 |
| Revelers in Health–Healthy Pleasure | 헬시플레저 | 젊을 때부터 내 건강은 내가 챙긴다 |
| Opening the X–Files on the X–teen Generation | 엑스틴 이즈 백 | 올해의 주인공은 X세대 |
| Routinize Yourself | 바른생활 루틴이 |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한 자기 관리 |
| Connecting Together through Extended Presence | 실재감테크 | 삶으로 들어온 메타버스 |
| Actualizing Consumer Power–Like Commerce | 라이크 커머스 | 페이스북·인스타 보고 쇼핑하는 시대 |
| Tell Me Your Narrative | 내러티브 자본 | 확고한 자기 스토리가 기업·개인 경쟁력 |

내고자 했다면 이제는 돈이 있어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득템력(Gotcha Power)'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다.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돈은 기본이고 시간, 정성, 인맥, 때로는 운까지 필요하다. 경제적 지불 능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희소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을 '득템력' 이라고 부른다.

차츰 재택근무와 원격학습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꼭 비싸고 복잡한 도시에 살아야 하는가 하는 당위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완전히 떠날 수 없다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시골의 정취를 느끼고 싶은 '러스틱 라이프(Escaping the Concrete Jungle-Rustic Life)'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다.

러스틱 라이프는 도시와 단절되는 삶이 아니라 도시에 살면서도 소박한 '촌'스러움을 삶에 더하는 새로운 지향을 의미한다. 논밭뷰, 불멍, 풀멍. '촌'스러움이 '힙'해지고 있다.

전 세계를 휩쓴 역병의 시대에 건강과 면역은 모두의 화두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젊은 세대가 더 이상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왕 할 거라면 즐겁게 '헬시플레저(Revelers in Health-Healthy Pleasure)' 트렌드가 뜬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젊은 소비자가 화두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과 양적·질적 변화를 보이는 세대는 바로 40대, X세대다. 기성세대보다 풍요로운 10대를 보낸 이 새로운 40대는 개인주의적 성향




트렌드 변화 속에서 반전의 시작이 될 2022년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 자신만의 서사, 즉 내러티브를 들려줄 수 있는 힘이 가장 중요한 자본력이 될 것이다.

이 강하며 자신의 10대 자녀와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한다는 면에서 '엑스텐 이즈 백(Opening the X-Files on the X-teen Genera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

노동시간 축소와 재택근무 확산으로 생활과 업무의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자기 관리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 스스로를 통제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직장인은 일과표를 만들어 스스로 준수하고 학생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스터디 카톡방을 만들어 실천을 인증한다. 일상에서도 '3분간 양치하기' 같은 소소한 습관을 지키며 나만의 성공 스토리를 모아간다.

이렇게 스스로 습관을 만들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바른생활 루틴이(Routinize Yourself)'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바른생활 루틴이의 자기 통제 노력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치유를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미세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의 일반화는 원격 소통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대유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실재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실재감테크(Connecting Together through Extended Presence)'다.

실재보다 더 실재 같은 가상공간. 실재감테크는 이렇듯 가상공간을 창조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감각 자극을 제공하며 인간의 존재감과 인지능력을 강화시켜 생활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기술을 말한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가? 그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나아가 소비자지향적인 소통 기술이 진화하면서 산업에서 차지하는 소비자의 역할과 위상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개인이 독자적으로 상품의 기획·제작·판매를 아우르는 새로운 유통의 가치사슬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쇼핑몰로 들어가지 않는다. 단지 누리소통망(SNS)을 배회하다 태그를 따라 들어가서 구매하는 '상시' 쇼핑 시대가 열렸다. '좋아요'에서 시작하는 쇼핑의 시대. 이를 '라이크 커머스(Actualizing Consumer Power-Like Commerce)'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 속에서 반전의 시작이 될 2022년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 자신만의 서사, 즉 내러티브를 들려줄 수 있는 힘이 가장 중요한 자본력이 될 것이다. 변혁의 시대에 꿈이 경제를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 꿈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내러티브 자본(Tell Me Your Narrative)'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것이다. ◉

심은하 기자

#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등 미래·환경가치 주목 좋은 정책, 디지털 소통으로 더 널리 알려야”

**Z세대를 통해 보는 2022년**

**대량자료(빅데이터) 분석기업 바이브컴퍼니의 생활변화관측소는 데이터에서 읽히는 사회 변화를 매년 〈트렌드 노트〉라는 책으로 엮어낸다. 최근 발간한 〈2022 트렌드 노트〉에서는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에 주목했다. 11월 23일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바이브컴퍼니 사옥에서 저자로 참여한 조민정(29)·구지원(27) 연구원을 만나 Z세대의 눈으로 본 2022년 트렌드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두 연구원은 이번 인터뷰를 위해 정책 관련 빅데이터를 따로 분석해 정부의 올바른 디지털 소통법을 제안했다. Z세대의 새로운 가치관, 행위, 소통방식을 소개하고 Z세대가 생각하는 정부 정책은 어떠하며 정부의 소통 방식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봤다.**

**–Z세대와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구지원)“좋은 게 좋은 거야”식의 추상적 말보다 얼마만큼 이득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 숫자와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 그것을 전달하는 콘텐츠는 짧아야 한다. Z세대가 짧은 콘텐츠에 능숙한 세대라 콘텐츠가 길면 안 보는 경향이 정말 강하다. 정책 홍보 영상은 길어야 3분이라는 걸 명심하면 좋겠다.

Z세대와 소통할 때 ‘틱톡에 나오면 되겠지’ 생각하기 쉬운데 짧게 말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축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한테 이득이 뭔데?”에 대한 답을 1분 안에 정리해야 Z세대와 소통할 수 있다.

1분짜리 동영상을 누리소통망(SNS)으로 내보내면 거기에 댓글이 달릴 것이다. 처음에는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올리고 피드백을 받아 고치는 식으로 순환하는 게 Z세대의 소통 방식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들여 뭔가를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댓글이 달리지 않으니까 그냥 묻혀 지나갔다. 좋은 정책이 많음에도 디지털 활용법을 몰라 전달하지 못하는 걸 Z세대는 소통의 부재로 느끼는 것 같다. 빨리 올리고 피드백을 빨리 반영해 퍼뜨리는 누리소통망의 소통 방식을 잘 알아야 한다.



=(조민정)구체적인 걸 보여줘야 한다. 예를 들자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 모으면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숫자가 딱 보이니까 열광하고 제로페이를 쓰면 10%를 추가로 주겠다고 하니까 움직인 거라고 생각한다. 탄소중립도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몇 퍼센트 줄이겠다고 하면서 구체적 방안들을 보여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게 줄어들겠네’, ‘정부가

2021년 가장 많이 언급된 정부 정책 50개를 카테고리(범주)로 분류했더니 환경이 4위였다.
상위 50개 정책을 보면 탄소중립이라든가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등
미래나 환경가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2022 트렌드 노트〉 저자로 참여한 구지원(왼쪽), 조민정 연구원이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바이브컴퍼니 옥상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구지원)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Z세대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인터뷰를 위해 Z세대가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댓글을 조사했더니 "20대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50~60대가 20대 정책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떠한 형태로든 20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 "남녀 똑같이 100명씩 모아 20대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정부의 소통 방식 가운데 바람직한 사례가 있나?**

=(조민정)관세청이 인스타그램을 잘 활용하고 문화재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트위터를 잘 활용하는 편이다.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들을 강아지일 때부터 키우는 과정을 사진으로 올리면서 공감하게 하고 산림과학원은 캠페인을 텍스트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거나 중간중간 퀴즈를 내면서 정책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다.

법제처 '새령이'처럼 각 부처나 기관에 있는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새령이 캐릭터는 뜨지 못한 2인자 같은 느낌으로 약간 비주류(마이너) 감성인데 그런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나의 세계관(영화·게임의 시나리오를 이루는 시간·공간·사상적 배경)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좋다. 어느 정부 기관의 누리소통망에 다른 정부 기관이 댓글을 달면 사람들이 '뭐지, 이 세계관 충돌은?'이라며 관심을 가진다. 그렇게 캐릭터들끼리 계속 부딪치고 만나는 과정이 모여 하나의 큰 대한민국 정부 세계관이 되는 식으로 좀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구지원)〈트렌드 노트〉를 쓰는 이유는 데이터를 통해 뭔가를 발견하고 사회가 바뀌는 데 기여하기 위

1




2




3




1 문화재청 트위터 2 관세청 인스타그램 3 법제처 캐릭터 '새령이' | 법제처 유튜브

해서다. 정부 정책까지 연결됐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 인터뷰에 응했다. 20대인 나도 "참 세상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친구들끼리 많이 하고 '이 답답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한다.

언론에서는 20대가 특이한 애들인 양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뭘 원하고 어떤 고통을 겪는지는 잘 모른다. 그런 규정이 아니라 20대의 이야기를 진짜 공감하고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꼭 필요하다.

**–돈을 이야기하는 Z세대가 ESG(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성)를 가장 열심히, 꾸준히 요구하는 '신념의 세대'라는 대목도 책에 등장한다. 이들은 진보적인가, 보수적인가?**

=(조민정)인터뷰를 준비하면서 2021년 가장 많이 언급된 정부 정책 50개를 카테고리(범주)로 분류했더니 환경이 4위였다. (긍·부정도는 포함하지 않고 단순 관심도만 측정한) 상위 50개 정책을 보면 탄소중립이라든가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등 미래가치나 환경가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구지원)기존 진보와 보수의 잣대로 보면 Z세대는 종잡을 수 없을 것이다. 신념을 중요시하지만 자신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정당이 아니라 어떤 인물이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직접적 혜택과 이익을 자신의 문화와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지지한다.

=(조민정)그래서 공약을 실제로 지켰는지도 끝까지 쫓아가서 "너 이거 왜 안 지켰어?"라고 얘기하는 세대다. 예전처럼 '일단 뽑았으면 그만'이 아니다.

**–두 연구원은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밀레니얼 세대로 MZ세대가 아닌가?**

=(조민정)Z세대와 나이 차가 많이 나진 않는데 심적으로는 멀더라. 연구원들끼리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정말 달라서 MZ세대로 함께 묶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한다.

=(구지원)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아주 초기에 주목하면서도 "이건 우리가 진짜 못 하겠다"고 했는데 틱톡이 트렌드가 되는 걸 보면서 '여기에 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데이터에도 Z세대가 워낙 튀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분리한다. Z세대는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종족처럼 데이터와 행동 양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우리도 느낀다.

**–Z세대가 겪는 어려움도 데이터에 나타났나?**

=(구지원)부동산과 일자리에 대한 박탈감과 상실감이 깔려 있다. 코로나19 이후 청년의 우울증과 정신건강이 데이터에 계속 언급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진료 기록이 남아 취업에 불이익

좋은 정책이 많음에도 디지털 활용법을 몰라 전달하지 못하는 걸 Z세대는 소통의 부재로 느끼는 것 같다. 빨리 올리고 피드백을 빨리 반영해 확산시키는 누리소통망의 소통 방식을 잘 알아야 한다.

이 있을까 봐 치료를 못 받는 20대도 많다. 마음속에 패배감과 좌절감이 누적되는 걸 자주 볼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이 7번째 〈트렌드 노트〉다. 주제는 언제 정했나?**

=(구지원)생활변화관측소는 매년 3~4월쯤 〈트렌드 노트〉의 주제를 정한다. 2021년엔 돈이라는 주제가 데이터에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욜로(한 번뿐인 인생이니 현재를 즐기며 산다)나 탕진잼(소소하게 탕진하는 재미)처럼 소비의 주체로만 인식되던 20대가 돈 모으는 걸 얘기하기 시작했다. '1억 원 모으기'처럼 재테크·주식 관련 키워드들이 연애·데이트 관련 키워드보다 더 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돈을 빼놓고는 Z세대를 이야기할 수 없다.

=(조민정)전에는 돈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걸 꺼리는 풍조가 강했는데 2021년엔 직접적으로 돈에 대해 언급하고 돈을 버는 구체적 방법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시드머니(종잣돈)'라는 열쇳말이 떠올랐다. 투자자들이 주로 쓰는 용어였는데 지금은 뭔가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 금액을 시드머니라고 부르는 게 일상화됐다.

=(구지원)다른 세대보다 Z세대가 더 많이, 그것도 당당하게 얘기한다. "시드머니 얼마 모았어?", "어디 투자하고 있어?"라는 질문이 날씨 묻는 것처럼 당연하다. 소비도 주식으로 바꿔놓아 "이 물건 안 사면 몇 주 살 수 있는데"라는 표현도 많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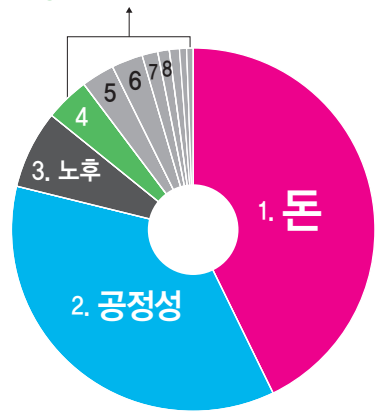
**–앞서 〈2021 트렌드 노트〉에서 조민정 연구원은 Z세대의 투명성 중시를 언급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가장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질병관리본부를 경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민정)Z세대는 정부가 모든 데이터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는 걸 본 세대다. 코로나19 환자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 라이브' 사이트를 만든 사람도 Z세대다. 그래서 "정부도 저렇게 하는데 너희는 왜 솔직하게 공개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윗세대는 정부 정책이 좀 모호한 게 있어도 넘어갔다면 Z세대는 넘어가지 않는다.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똑바로 얘기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무엇보다 Z세대는 어릴 때 세월호 침몰 사고를 겪은 세대다. 사회 전반을 보는 시선이 날것 그대로 요구하며 날카로워진 것 같다. 그래서 부정적 데이터까지 숨기지 않고 전부 공개해 "우리 함께 해결합시다"라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코로나19 환자 수가 늘어나도 이해하는 것이다. ◉

글 원낙연 기자, 사진 곽윤섭 기자

## 2021년 가장 많이 언급된 정부 정책 순위




| 순위 | 정책 | 카테고리 |
|---|---|---|
| 1 | 재난지원금 | 돈 |
| 2 | 공수처 | 공정성 |
| 3 | 검찰개혁 | 공정성 |
| 4 | 최저임금 | 돈 |
| 5 | 국민연금 | 노후 |
| 6 | 탄소중립 | 환경 |
| 7 | 디지털 성범죄 | 안전 |
| 8 | 실업급여 | 돈 |
| 9 | 문재인케어 | 노후 |
| 10 | 근로장려금 | 돈 |
| 11 | 고교학점제 | 공정성 |
| 12 | 양성평등 | 공정성 |
| 13 | 한국판 뉴딜 | 일자리 |
| 14 | 학자금대출 | 돈 |
| 15 | 제로페이 | 돈 |
| 16 | 누리과정 | 육아 |
| 17 | 아동수당 | 육아 |
| 18 | 공정경제 | 공정성 |
| 19 | 기초연금 | 노후 |
| 20 | 분양가상한제 | 부동산 |

자료: 바이브컴퍼니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살피고** 지역화폐 늘려 **골목상권 살린다**

## 어디에 집중됐나

국회는 12월 3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보다 3조 3000억 원 늘어난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 원안보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2021년 하반기에 결정된 코로나19 세정 지원으로 인한 납세 이연분 등이 반영되면서 2022년 총수입은 553조 6000억 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4조 7000억 원 늘었다.

늘어난 지출은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집중 배정됐다. 정부가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변화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분기당 하한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됐다. 관련 예산은 애초 1조 8000억 원에서 2조 2000억 원까지 늘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배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 손실보상 하한액 50만 원으로 5배 인상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 지원 효과 등을 반영해 2022년 총수입이 4조 7000억 원 증가하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이 3조 3000억 원 순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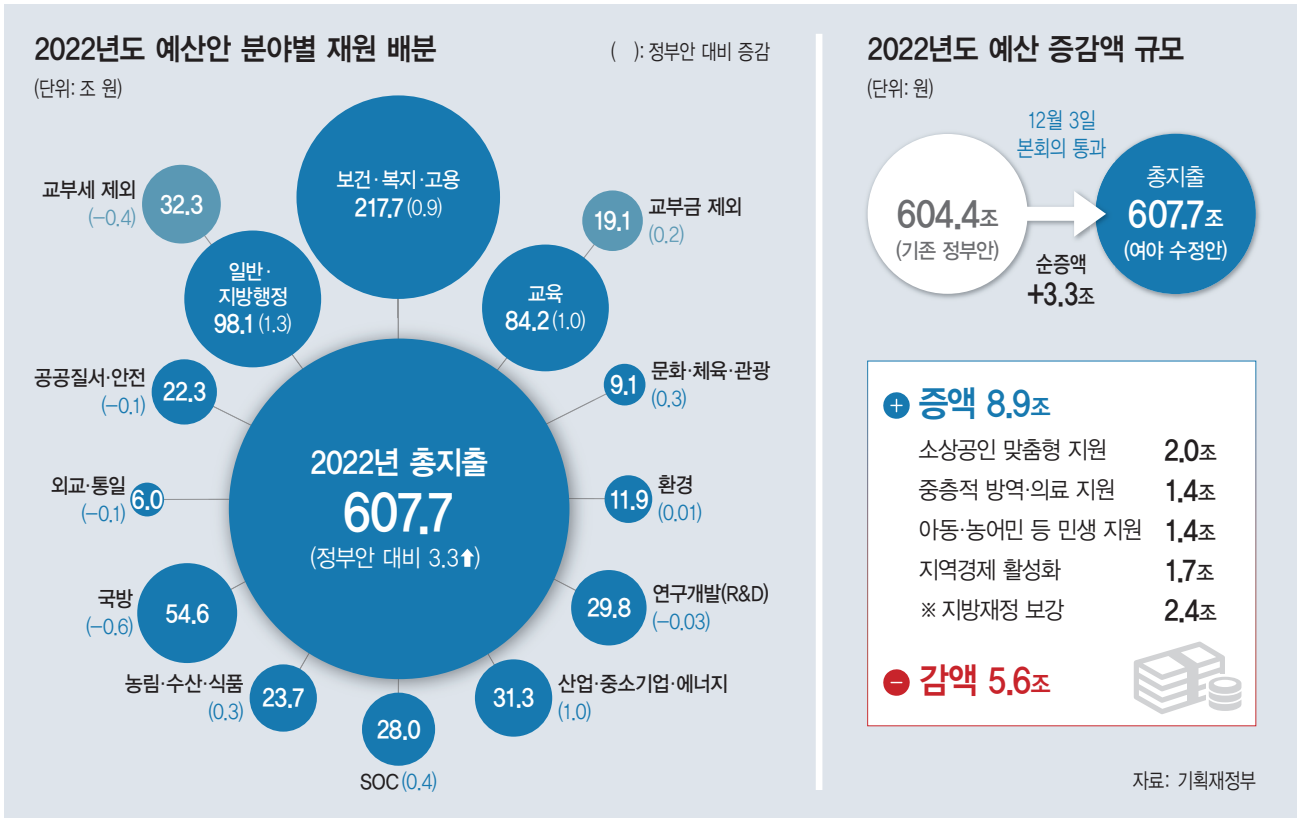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 업종 맞춤형 지원을 10조 1000억 원으로 2조 원 확대한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다. 상환 기간이 도래했거나 대출한도가 초과한 소상공인에게 최저 연 1%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데도 기존 5조 8000억 원에서 7조 원까지 예산이 늘었다.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분기당 35조 8000억 원 자금을 최저 연 1%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저신용자 금융절벽을 해소하고 이자 부담을 줄인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4000억 원 늘어난 9000억 원을 지출해 융자 확대, 고용 지원, 바우처 보급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른 방역을 위해 1조 4000억 원을 보강한다. 이 가운데 3500억 원가량을 들여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만 명분을 구매하기로 했고 중증 환자 병상을 1만 4000개 이상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도 4000억 원 늘렸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들에게도 의료비와 사망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42억 원 늘었다.

이와 함께 돌봄·보육, 농어민 등 민생 현안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 지원 규모를 15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누리보육료 단가를 2만 원 높여 기관보육료를 8%로 늘리는 등 보육의 질을 높이고 비료생산업체 무이자 대출 등

늘어난 지출은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집중 배정됐다. 정부가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변화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농어민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 지원 규모를 15조 원으로 늘리고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조 7000억 원 대비 2조 4000억 원을 추가해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한다. 애초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6조 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예산 증액으로 발행 규모가 15조 원까지 확대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 원 규모다.

### "경제활력 조기 회복" 예산 73% 상반기 배정

2022년 예산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4조 1000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 5000억 원 줄었다.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 9000억 원 감소한 1064조 4000억 원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50%로 정부안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정부는 2022년 전체 세출 예산의 73%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특히 방역, 산업·중소기업, 연구개발(R&D) 분야 등의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 기획재정부는 12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

정부는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2022년 전체 세출예산의 73%인 363조 5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배정률을 놓고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2021년 72.4%, 2020년 71.4%, 2019년 70.4%였다.

기재부 정책 담당자는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원낙연 기자

✓아동입양축하금 ✓아파트 경비원 근무여건 개선 ✓낙동강 먹는물 해결

# 더불어 사는 세상 위한 '민생지원' 눈에 띄네

## 이색 사업 예산

12월 3일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2022년도 예산에는 아동입양축하금 200만 원 신설과 우리 농산물 소비 3종 세트,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낙동강 유역 먹는물 해결 등 아동·농어민 민생지원과 국민생활 안전 분야에 이색 사업 예산이 여럿 포함돼 있다.

아동·돌봄·보육 분야에서는 취약아동 지원(총 9조 440억 원)사업 중에 새로 편성된 '입양축하금'이 눈길을 끈다. 보호대상아동 입양을 지원하기 위해 '첫만남 바우처'(2022년 신설)와 동일한 금액의 입양축하금 200만 원이 신설됐다. 입양아동 383명에게 축하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돼 1만 3000명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포함한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에 총 238억 원이 배정됐다.

또 다른 아동보호사업으로 가정에서 영유아, 학대피해 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하는 전문위탁부모에게 보호비로 한 달 100만 원을 신규 지급한다. 약 433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달 30만~100만 원을 지급해 거주하는 지역별로 지원 편차가 큰 편이었다. 나아가 저소득층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벌인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27억 원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지원 시작 나이를 만 11세에서 9세로 낮추고 지원 종료 나이는 만 18세에서 24세로 높였다. 기획재정부는 "지원 나이대 확대로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받는 청소년이 11만 명가량 더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만 9~24세)을 대상으로 한 달 1만 2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원






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예산은 2012년 72억 원에서 2022년에 127억 원으로 크게 늘리는 안으로 확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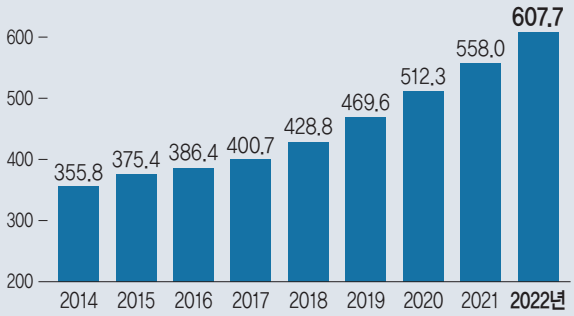
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점령한 뒤 '미라클 작전'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탈출 과정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6억 원도 배정됐다. 주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 통역사, 바그람 한국병원 의료진 등 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에게 53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급식·교육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상생 지원을 강화하는 여러 이색 예산도 관심을 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 방식 합리화를 위해 아파트 200곳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6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기존 장기간·야간 근무 방식을 개선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한 상담 200건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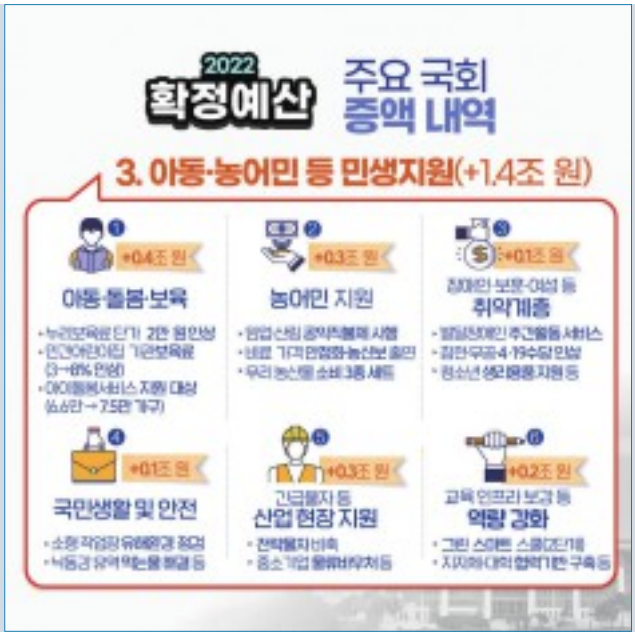
저개발국 청소년과 주한 외국인의 금융거래 지원 예산도 있다.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동계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들이 남북 강원도 지역에서 전지훈련 후에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1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주한 외국인이 인터넷은행 계좌 개설 등 비대면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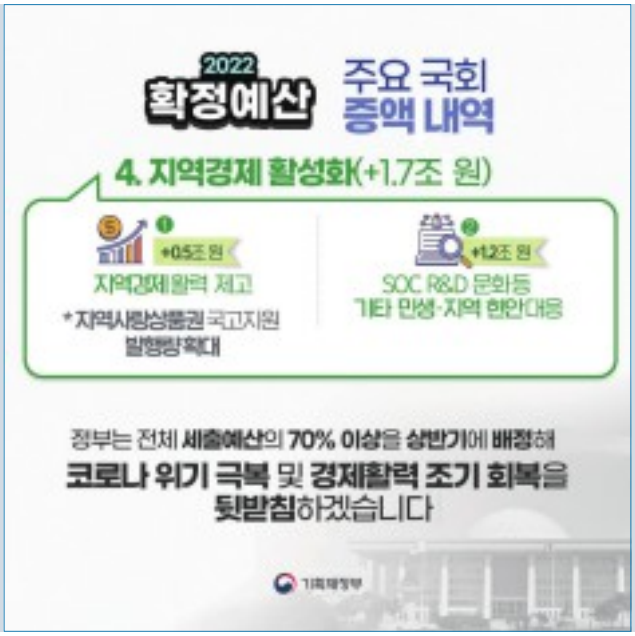
**정부예산 추이**

(단위: 조 원,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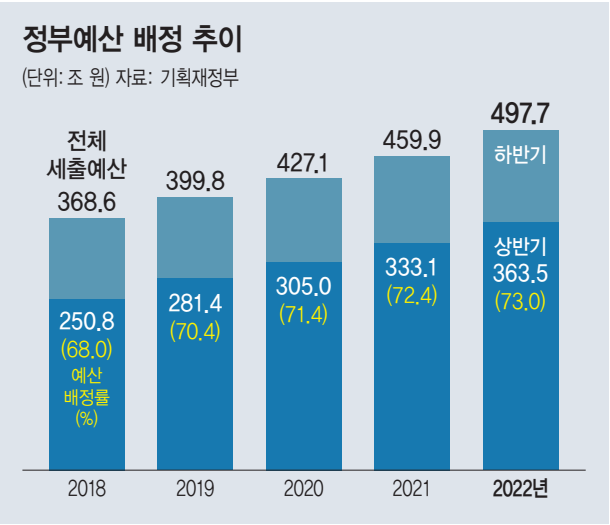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상생 지원을 강화하는 여러 이색 예산도 관심을 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 방식 합리화를 위해 아파트 200곳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6억 원이 편성됐다.




자료: 기획재정부




대한 진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5억 원을 들인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274억 원**

사회서비스 품질 강화 예산은 1조 7209억 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사회서비스원법(2022년 3월 시행)에 따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 등을 수행하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246억 원이 배정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상담·재활·돌봄 등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지원, 종사자 처우 개선·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는 274억 원이 배정된 전자감독사업이 눈길을 끈다. 특별사법경찰의 성범죄자 등 전자장치 부착자 감시를 위한 차량, 영상녹화조사실 지원과 신형 전자발찌 개발에 쓰일 예정이다. 군 성폭력 상담소 설치에도 3000만 원이 배정됐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특화된 전문 성폭력 피해 상담소 1곳을 설치·운영하는 데 지원한다.

물과 산림자원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445억 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낙동강 유역의 먹는물 문제 해결을 위해 취수원 다변화와 상류 산업단지 하수·폐수 처리시설 고도화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98억 2000만 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쓰인다. 낙동강 수질개선시설과 친수시설 개선(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취수장 5곳, 양수장 2곳 설계 등 추가 반영)에 총

군 성폭력 상담소 설치에도 3000만 원이 배정됐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특화된 전문 성폭력 피해 상담소 1곳을 설치·운영하는 데 지원한다.

321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는 갯벌 식생조림 시범사업에 2곳이 추가돼 14억 8000만 원이 반영됐고 산림자원 벌채 전 과정에 대한 공정관리 강화를 위해 국유림을 대상으로 목재 수확 이전에 타당성 조사를 시범 실시하는 사업에 11억 원이 편성됐다. 두 가지 모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자원 관련 기후변화 대응 예산인 셈이다.

**요소 등 긴급물자 지원사업 604억 원**

또 산업현장 긴급 애로 지원사업인 청년 교통비도 눈길을 끈다. 지역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만 15~34세) 고용 촉진을 위해 교통비(월 5만 원)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확대된다. 청년 교통비 지원액은 정부안(684억 원)보다 국회에서 68억 원이 증액돼 총 752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1년 요소수 파동을 거치면서 '요소 등 긴급물자 등 산업현장 지원사업'으로 604억 원이 배정됐다. 요소 등 공급망 취약 물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정부가 긴급 구매 후 제조기업에 재판매하는 지원체계 구축에 481억 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급망 취약 관리대상 물품 비축을 위한 다목적 창고 설계비로 11억 원, 2022년까지 반도체 등 핵심 소재인 희토류 4종의 비축 일수를 180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비축 예산 112억 원이 배정됐다.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 패키지(총 1423억 원)도 확대됐다.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이른바 '농식품 소비 3종 세트'는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72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158억 원),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89억 원)으로 구성된다.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코로나19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농축수산물 20% 할인 소비쿠폰을 추가 반영(총 452억 원)했다. ◉

조계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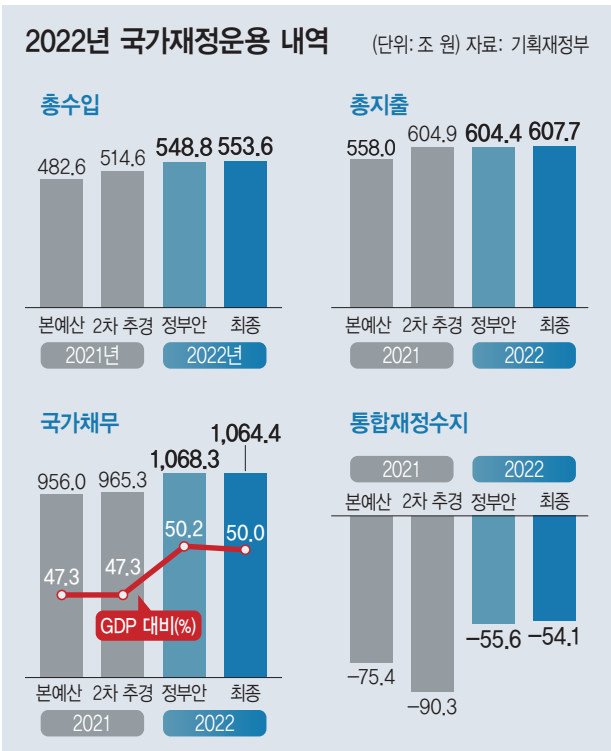
# 눈에 띄는 **탄소중립·한국판 뉴딜**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2년도 예산에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여러 중앙부처 예산마다 각각 흩어져 중점적으로 반영·편성돼 있다. 탄소중립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2022년 부처 예산에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업들이 본격 반영돼 있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무공해차 450만 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2022년에 수소차 2만 8000대, 전기차 20만 7000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쓴다.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예산 8928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1조 9352억 원이 배정됐다. 내연기관차를 하루빨리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2022년 35만 대, 3360억 원)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2022년 3만 5000대, 578억 원)했다.

생산·유통·소비·재사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버려지던 폐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예산도 늘었다.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운영(54억 원), 다회용 포장재 재사용 촉진 지원(54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41곳 272억 원),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139억 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에서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며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으로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각종 사업에 총 4조 7280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탄소중립 선도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교 개교(2022년 3월)를 위해 장비·인력양성 등에 250억 원이 지원된다.




### 그린 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 45억 원

2022년도 예산에는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이 여러 중앙부처 예산에 중점 반영돼 있다. 국토교통부 예산에서는 미래 혁신성장을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예산이 두루 반영돼 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2245억 원, 수소시범도시 245억 원 등 총 8330억 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2022년 물류 기반시설 지원 예산은 307억 원으로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 질 향상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 수요 대응을 위한 적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200억 원 규모로 지속 운영하고 기반시설 첨단 관리기술 개발과 수요 대응 이동수단(모빌리티) 등 연구개발 예산도 5788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예산에서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1조 8338억 원까지 크게 늘렸다. 또 중소기업 수출 저변확대를 위해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에 142억 원을 배정했다. 환경부는 신규 사업으로 그린 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ODA)에 45억 원을 편성했다. ◉

조계완 기자

# 내년 예산이 많아 보이지 않는 이유

**대내외 엄중한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내수 부문이 정상화될 때까지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607조 원을 훌쩍 넘는 2022년 예산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이유다.**

## 2022년 예산에 거는 기대와 의미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예산 규모는 총 607조 6633억 원이다. 2021년보다 8.9% 늘어나 2년 연속으로 국회 수정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늘었다. 애초 정부안은 604조 4365억 원(총지출 기준)이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을 68조 원 규모로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정부안 6조 원보다 24조 원이나 많은 30조 원으로 늘렸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더욱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측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한다. 무엇보다 이번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코로나19 극복과 미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회복·상생·도약' 예산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을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한 소상공인 213만 명에 대해 35조 8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융자해준다. 또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택시·버스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1.5%대 생활안전자금도 마련됐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500억 원 규모로 1.6%대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30조 원으로 중앙정부가 15조 원 발행 분에, 지방정부가 15조 원 발행 분에 지원한다. 방역·의료지원 예산은 코로나19 치료제 40만 명분 구매 예산 3516억 원, 중증 환자 치료 병상 1만 4000개 확보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3900억 원이 배정됐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육아휴직 지원 예산 1121억 원도 마련됐다.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에 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자 1인당 월 20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사용 노동자에게 주는 급여 예산은 1조 5807억 원으로 2021년 1조 2486억 원보다 26.5% 늘었다. 이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노동자는 1만 8823명으로 추산된다.

### 다시 먹구름 드리우는 세계경제

세계경제가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은 세계경제 회복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들이 다시 국경을 닫고 있다. 서서히 완화되던 여행 제한은 최근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다시 대유행이 한창이던 때로 되돌아갔다. 이는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경기회복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오미크론의 전파는 한 나라 안에서 자유로운 이동도 막고 있다. 유럽은 델타 변이와 싸우기 위




2020년 5월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 한겨레

해 오미크론 이전부터 많은 활동을 제약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회복을 고대하던 서비스업과 여행업 등은 다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반면 이른바 '보복 소비'와 공급망 불안은 인플레이션에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세계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10월 소비자물가가 2020년에 견줘 6.2%나 올랐다. 이는 30년 만에 최대 증가다. 미국뿐만 아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물가는 전년에 비해 5.3% 올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돈줄 죄기'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긴축은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들에 치명적이다. 달러와 미 재무부 국채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으로 인해 이머징마켓(신흥시장)에 유입되는 달러는 줄어든다. 달러가 수출 결제 용도로 사용되는 무역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내수 정상화까지 확대 기조 유지해야**

중국의 경기둔화도 우려된다. 중국 시장이 휘청거리면 전 세계 거의 모든 수출국이 고통을 받는다. 중국은 기계 등 자본설비에서부터 알루미늄과 석탄, 면화, 옥수수, 와인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수입국이다. 세계경제는 지금 미국의 매파적 통화정책과 중국의 경기둔화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2010년대 중반에도 미 연준의 테이퍼링으로 이머징마켓 국가들은 고통을 겪었다. 미국의 달러 회수로 이머징마켓의 성장률(중국 제외)은 2011년 5.3%에서 2015년 3.2%로 줄었다. 지금은 더 나빠질 수 있다. 미 연준이 2010년대 중반 때보다 더 빨리 돈줄을 죌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수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내수는 여전히 부진해 불균등한 회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확장적 재정 등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다면 불평등 완화는 쉽지 않다.

이 같은 대내외 엄중한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내수 부문이 정상화될 때까지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607조 원을 훌쩍 넘는 2022년 예산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이유다. ◉



●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홍화정 그림

## 48. 우리는 함께 변화하고 있어요!




출근길에 늘 챙기게 되는 개인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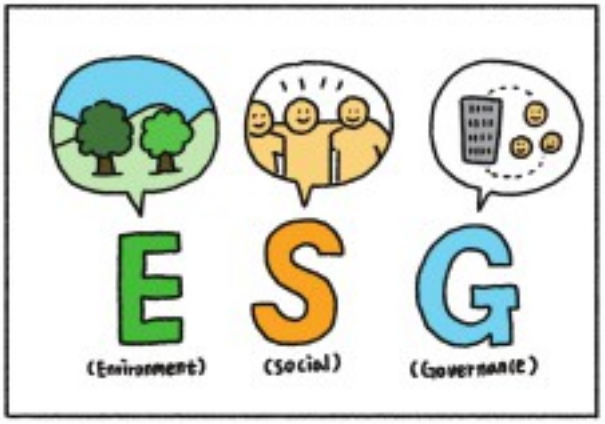

어딜가든 개인컵을 챙겨 다니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대화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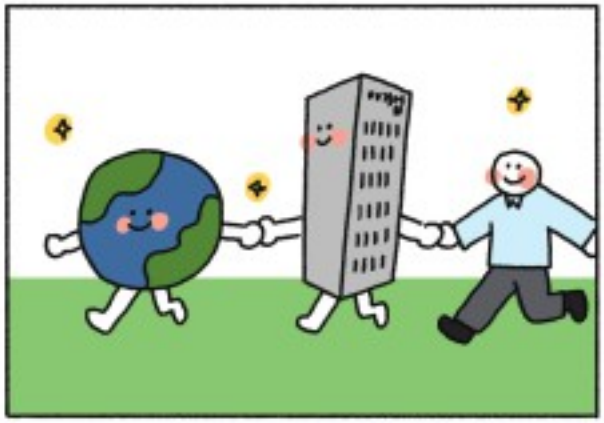

'ESG 경영'이란 단어를 들었는데요,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비재무적 지표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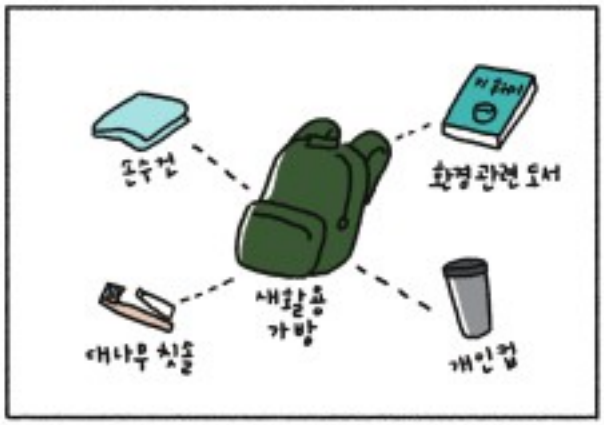

요즘들어 필수지표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환경과 사람을 함께 생각하는 경영 방식인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 요즘 저는 어떨까요?




탄소중립 생활모임을 나가며 가방 속 물건들이 바뀌었고




일상의 모습도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참여한 모임이 저의 작은 변화였는데




돌아보니 우리가 되어 함께 변화로 나아가고 있네요☺



# 탄소 저장 공간 탈바꿈, K-탄소중립 선봉장

## 동해가스전 활용한 탄소 절감

울산 남동쪽 60㎞ 해상에는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솟아 있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생산광구인 '동해가스전' 해상 플랫폼이다. 한국석유공사는 1998년 7월 가스층을 발견한 뒤 경제성 평가, 생산정 시추, 생산시설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2004년 7월 11일 천연가스 생산을 개시했다. 1970년 국내 대륙붕 탐사에 나선 지 34년 만이다.

세계에서 95번째로 우리나라를 산유국 대열에 오르게 한 동해가스전은 2022년 생산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미 설치된 해상 플랫폼, 해저 수송 배관, 자원개발 생산시설 등은 2025년부터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탄소중립 달성 지원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 기존 설비 활용해 바다 밑에 탄소 저장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통합실증사업 공청회'를 열고 동해가스전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상용 규모의 CCS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울산, 부산, 경남, 포항 등 동남권 산업단지 수소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기존 배관을 통해 수송한 뒤 동해가스전



2025년부터 탄소저장고로 변신할 동해가스전의 해상 플랫폼 | 한겨레

**"연간 40만 톤짜리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실증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해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면 주변에 저장 가능한 구조들을 활용해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고갈 저류층에 저장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연간 40만 톤씩 30년 동안 모두 120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2017년 정부는 포항 해상에서 이산화탄소 100톤의 해상지중 저장 주입 실증사업에 성공했다. 세계에서 3번째 소규모 실증 성공 사례였다. 이어 정부는 상용 규모 저장 실증을 위해 2020년 8월 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기획에 착수했다. 총괄 기획위원장을 맡은 권이균 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동해가스전은 생산한 천연가스를 육상으로 옮기기 위한 배관과 해상 플랫폼 등 기존 설비를 상당 부분 재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해가스전이 육상에서 60㎞ 떨어져 있고 고갈된 가스전 저류층은 누출 경로가 없어 안전한 저장소로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인근 동해 울릉분지에 동해가스전 저류층의 15배가 넘는 대규모(1억 9300만 톤) 저장소가 존재해 사업 확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도 가능하다.

권이균 교수는 "연간 40만 톤짜리 CCS 실증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해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면 주변에 저장 가능한 구조들을 활용해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모사 테스트베드' 연구 성과 가스전에 적용

동해 CCS 실증사업은 이미 확보한 소규모 실증 기술을 중규모로 격상하고 수송·주입 등 분야별 핵심 상용 기술을 확보해 대규모 상용화를 위한 기술 자립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충남 공주대 예산캠퍼스 'CCS 모사 실증 테스트베드(시험장)'에서는 해양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을 그대로 구현해놓고 기술 자립화와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 산업부와 한국에너기술평가원의 지원으로 2020년 초 준공한 테스트베드는 해양 CCS 저장 설비의 구성 요소인 저장소, 해저 배관, 연안 터미널, 해상 플랫폼 등을 인공적으로 구성했다.



충남 공주대 예산캠퍼스 'CCS 모사 실증 테스트베드'에서 연구원들이 실제 현장과 같은 주입, 수송 등을 실증하고 있다. | 공주대학교

이산화탄소 주입 실증을 통해 실제 이산화탄소 저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저장소 조건 변화에 따른 주입 운영 기술을 고도화했다. 이산화탄소 주입 실증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CCS 운영 인력 양성 플랫폼의 역할도 수행한다.

권이균 교수는 "먼바다에 나가려면 배도 필요하고 고가의 설비가 필요한데 예산 절감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실제 현장과 같은 주입, 수송 등을 연구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는 기술적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며 "테스트베드 연구 성과를 동해가스전 등 앞으로 추진할 CCS 사업의 설계와 저장 사업 실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탄소 저장에 활용까지 K-CCUS 추진단 발족

정부는 우리의 독자 기술로 실증 규모의 플랜트를 운영·관리함으로써 CCS 전 분야에서 기술 자립화와 선진국 수준의 기술 역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CCS에 머물지 않고 포집한 이산화탄소로 여러 제품을 만드는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2021년 4월에는 K-CCUS(한국형 CCUS) 추진단이 발족했다. K-CCUS 추진단은 산업부 주도로 에너지 관련 기업과 한국전력공사, 학계 등과 연계해 만든 컨트롤타워(지휘본부)다. SK이노베이션,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분야 주요 기업 50여 개가 참여하고 있다. 석유공사, 한국전력, 발전 5사, 가스공사 등 10개 에너지 공기업, 15개 연구기관, 20여 대학 등 모두 80여 개 기관이 참여했다.

K-CCUS 추진단은 최근 산업계 간담회와 국회 정책 토론회 등을 열어 업계 기술개발 수요와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CCUS 성과 확산 방안 등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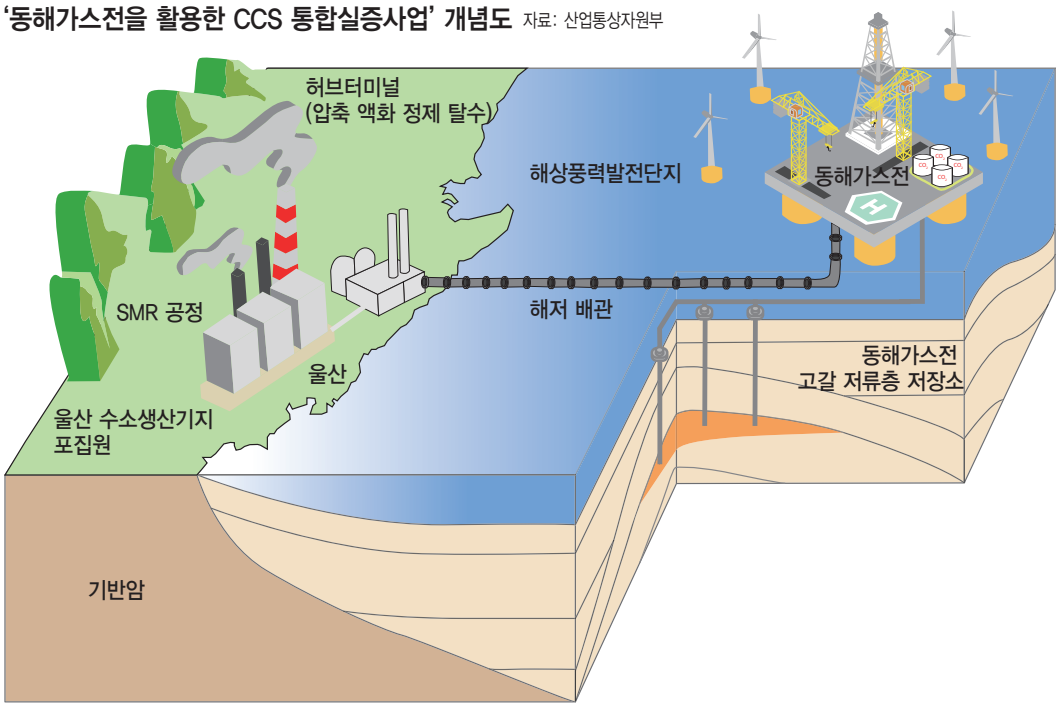
정부는 "CCUS 기술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CCUS 산업을 기후대응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면 민관의 협업이 필수"라며 "추진단이 중심이 돼 민관·민간 간 협업 성공 사례를 만들고 확산시켜 CCUS 신산업을 조기에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정부 "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신산업으로"

K-CCUS 추진단 발족식에서 산업부는 2030년까지 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CCUS 산업기반 마련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CCUS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023년까지 국내 대륙붕 탐사·시추를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을 갖춘 1억 톤급 저장소를 확보한다. 이는 매년 40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약 30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규모다.

또 'CCUS 실증 및 사업화 지원센터'에서 신생기업과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2021년 전남 여수에 구축된 지원센터는 시제품 제작 등 기술개발, 시험·인증평가, 기술·정보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비즈니스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통합실증사업' 개념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까지 국내 대륙붕 탐사·시추를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을 갖춘 1억 톤급 저장소를 확보한다. 이는 매년 40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약 30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규모다.**



11월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통합실증사업 공청회' | 산업통상자원부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CCUS 확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CCUS 산업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작업도 관계부처 공동으로 2021년 안에 착수한다. 이 법률은 CCUS 추진을 위한 단일법으로 CCUS 기술개발, 기업 육성 등 CCUS 산업기반 조성 방안과 시설에 대한 안전과 환경관리 체계를 담는다. 산업부는 2022년 CCUS 법률안 마련과 입법화를 추진하고 2023년 하위법령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동해 CCS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안에 95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시설 구축을 거쳐 2025년부터 이산화탄소 저장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성과 환경성을 바탕으로 저장 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신산업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원낙연 기자

## 마지막에 배출 총량 '0' 매조지 탄소중립의 마무리투수 CCUS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은 현재 10여 가지가 있다. 권이균 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에는 왕도가 없다"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기술을 다 모은 투수진으로 총력전을 해야 감축목표를 달성해 이길 수 있는 야구 경기"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의 선발투수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전기화, 신재생에너지, 효율 향상 등이 꼽힌다. 여러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에너지원을 전기화하고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해 효율을 향상해야 한다.

권이균 교수는 "이처럼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단이지만 석유화학, 제철 등에서 계속 이산화탄소를 내뿜을 것이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곳이 또 생기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마지막에 제거하는 기술이 마무리투수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머지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궁극적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마무리투수로는 흡수원 강화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이 꼽힌다. 흡수원 강화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흡수원인 나무나 미세조류를 늘려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시키는 것이다. CCUS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직접 효과가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에서는 CCUS가 전체 감축량의 10~20% 기여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산화탄소를 마지막에 제거하는 역할이라 CCUS 없이 탄소중립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한다. 권이균 교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궁극적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탄소중립"이라며 "CCUS는 탄소중립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은 아닐 수 있지만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 환자 골든타임과 구급대원 안전 모두 지켰다

**정부·사회혁신 및 적극행정 등 문재인정부의 주요 제도혁신 성과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소개합니다. 이번 호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환자의 골든타임과 구급대원의 안전 모두를 지켜낸 수원시 사례입니다.** 〈편집자 주〉

## 수원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2020년 경기도에서 긴급차량 이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02건이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매일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달리는 구급대원들의 마음을 알기에 그들의 교통사고는 안타깝기만 하다. 그런데 이런 긴급차량의 고질적인 문제를 간파하고 해결한 곳이 있다. 바로 경기 수원시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다.

수원시는 2020년 3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하고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등을 녹색으로 바꿔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시스템 도입 이후 수원시에서 최근 1년 6개월 동안 긴급차량 이송 중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한 환자는 총 820건에 달한다. 우선신호시스템으로 환자 이송의 새 역사를 써서 기쁘다는 수원남부소방서 구급대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교통정보팀 이병호 부팀장과 수원남부소방서 구급대원들이 구급차량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수원남부소방서



수원남부소방서 구급차량들이 출동 준비를 위해 차량 관리와 소독을 하고 있다. | 수원남부소방서

## 수원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성과

자료: 수원시

① 전국 최초로 센터 방식을 이용해 지역 제한 없이 관내 전 지역 10분 이내 도착

② 평균 통행시간 56.3% 단축

③ 긴급차량 교통사고 전년 대비 100% 감소 (수원시 기준)

**열쇳말**

**골든타임**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급차량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추적해 교차로 진입 시 자동으로 녹색신호를 부여해 골든타임을 확보

**"심정지 환자가 제때 병원에 도착한 덕분에 심폐소생 후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느낀다."**

### "환자의 골든타임 지킬 수 있어 기뻐"

"처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경험했을 때는 완전히 신세계였죠!"

구급대원 경력 14년 차인 강성현 수원남부소방서 구급대 팀장에게도 우선신호시스템은 획기적인 변화였다. 강성현 팀장은 처음 우선신호시스템이 적용된 구급차량에 탑승한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날 강 팀장이 접한 환자는 심정지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였기에 긴급히 환자를 태우고 인근 병원으로 출발했다. 우선신호시스템이 적용된 이 구급차량은 멈추거나 서행하지 않았고 평소보다 빠르게 병원에 도착해 의사에게 환자를 인계할 수 있었다.

"과거와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였죠. 예전 같으면 아무리 위급한 환자라도 차량 통행이 복잡한 교차로에서 멈추거나 서행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하지만 우선신호시스템으로 한 번에 병원에 도착하니 정말 기쁘더라고요."

일분일초가 아쉬운 위급 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인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증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10명 중 2명은 골든타임 내 병원에 도착했다면 살 수 있었다.

물론 생사가 오가는 환자와 보호자는 구급 차량이 병원에 얼마나 빨리 도착했는지 신경 쓰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이 시스템 변화를 직접 체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구급대원은 평소보다 얼마나 빨리 병원에 도착했는지 느낀다. 강 팀장은 "심정지 환자가 제때 병원에 도착한 덕분에 심폐 소생 후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구급대원이 이송한 모든 환자의 예후를 살펴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실에 환자를 인계하고 나오면 끝나기 때문이다.

"내가 이송한 환자가 무사히 병원 치료를 받았는지, 회복이 잘돼 일상으로 돌아갔는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직접 확인은 못 하고 마음속으로만 잘살 거라고 생각하죠."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하고 나서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아도 교차로마다 녹색신호로 바꿔주니까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죠. 구급대원들도 그 전에 비해 심리적으로 80%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1 수원남부소방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 강성현 수원남부소방서 구급대 팀장이 구급대원과 함께 차량 내 훈련을 하고 있다. | 수원남부소방서

**최근 1년 6개월간 구급 차량 교통사고 ‘0’**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위급 환자의 골든타임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환자의 이송을 책임지는 구급대원의 안전도 함께 지킨다. 사실 위급 환자를 싣고 도로를 질주하는 구급차량은 위태롭기 그지없다.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는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기에 위험 부담도 크다. 실제로 2020년 경기도에서는 긴급차량 이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총 102건에 달한다.

강 팀장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도 일반 차량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구급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며 “그동안 동료 구급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종종 지켜봤는데 사고가 났던 구급대원은 자책하거나 괴로워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다행인 점은 수원시에서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하고 난 후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구급차량 관련 교통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 직전 1년간 수원시에서 발생한 구급차량 교통사고가 14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하고 나서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아도 교차로마다 녹색신호로 바꿔주니까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죠. 구급대원들도 그 전에 비해 심리적으로 80%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수원시에서는 현재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각 2대씩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수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 수원남부소방서는 총 8대의 구급차량 중 1대만 우선신호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모든 구급대원이 시스템의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 이에 강 팀장은 앞으로 우선신호시스템이 수원시 전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긴급차량에 적용되기를 희망했다.

“우선신호시스템이 소방서 모든 구급차량과 소방차 등에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긴급출동 차량에 이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민주 기자

##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예산 줄이고 안전 높이고

### 이병호 수원시 교통정보팀 부팀장

전국 최초로 경기 수원시에 구축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한 공무원의 고민에서 시작됐다. 이병호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교통정보팀 부팀장은 "교통공학을 전공하던 대학생 시절에 교차로를 급하게 지나던 구급차량의 사고를 자주 목격했다"면서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은 예전에도 있었다. 처음 1세대 방식은 상황실에서 교차로에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보면서 긴급차량이 신호등 앞에 도착하면 사람이 교통신호를 조작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사람이 항상 상황실을 지키고 있어야만 가능했다.

2세대 방식은 교차로와 긴급차량에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것인데 한 교차로당 설치 비용 3000만 원이 필요했다. 수원시 전역에 이 장비를 설치하려면 300억 원의 예산이 드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병호 부팀장은 '버스정보시스템을 이곳에 적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수원시에 와서 했던 일이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이었어요. 정류장에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안내하는 시스템인데 이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처음에는 긴급차량에 버스와 같은 단말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휴대전화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긴급차량이 목적지를 앱에 입력하면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긴급차량의 위치를 파악해 교차로에 도착할 때쯤 신호를 미리 바꿔놓는다. 이 시스템이 3세대 방식이다.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교통정보팀 이병호 부팀장이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 수원남부소방서

### 전국 30여 개 지자체서 도입 예정

"중요한 건 이 앱을 개발하는 데 4억 원의 비용만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과거 2세대 방식으로 수원 전역에 장비를 설치하려면 3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했는데 4억 원으로 수원 전체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게 됐죠."

이 시스템은 휴대전화에 앱만 설치하면 긴급차량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투자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아 전국 3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원시의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부팀장은 "지자체에서 방문하면 우선신호시스템의 구축 과정과 방식을 소개하고 시스템도 시연한다"며 "각 지자체 반응이 매우 좋다"고 밝혔다.

교통신호 시스템은 지자체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울산시, 부산시, 경기 의정부시·파주시·화성시 등을 시작으로 지자체들이 앞다퉈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 이 부팀장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개발로 2020 수원시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2020 제1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근정포장 등을 수상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이 부팀장은 확신과 신념을 갖고 시스템 구축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점이 많은 건 알겠지만 안 해도 되는 이유도 많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점이 보이면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믿음과 확신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이번 사업의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민주 기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 신한류는 어떻게 세계를 매혹시켰나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등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재조명합니다.**
**K-방역,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도경제, 신한류, 한반도 평화 분야의 주요 성과를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이번 호는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의 많은 이에게 희망을 선사한 신한류 열풍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 K-콘텐츠 신르네상스 열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이 전 세계에서 뜨겁다고 하지? 넷플릭스 TV 부문에서 연일 1위에 오르면서 장기 흥행에 돌입했더라고. 최근 우리나라 드라마는 전 세계로 무대를 확장하고 있어. 최근 드라마 한류 열풍의 출발은 〈오징어 게임〉이 끊었지. 2021년 9월 23일부터 46일 연속 1위를 해서 넷플릭스 사상 최장 기간 1위에 올랐어. 1억 4000만 명이 시청한 〈오징어 게임〉의 흥행 성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숨바꼭질과 딱지치기, 뽑기 등이 유행하는 기현상을 낳았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지옥〉과 〈오징어 게임〉을 극찬하기도 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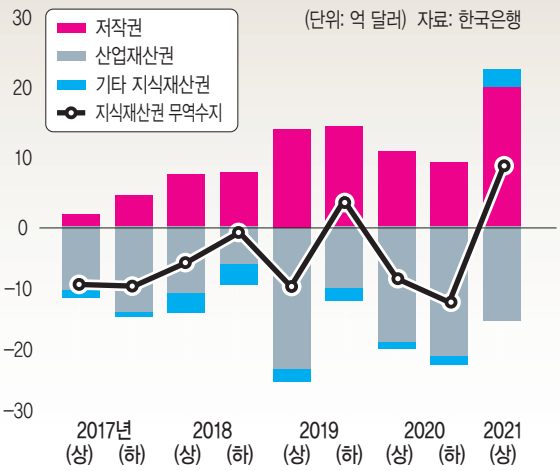
한류로는 K-팝을 빼놓을 수 없겠지?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최근 미국 로스엔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2년 만에 대면 공연을 열었는데 4회 모두 전석이 매진됐어. 총 21만 명이 관람했다고 해. 콘서트 첫날에만 2600만 건의 트윗이 쏟아졌고.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는 2021년 애플뮤직에서 가장 많이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된 노래였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뮤직어워즈(AMA)에선 최고상 '올해의 아티스트'를 비롯해 3관왕에 올랐어. '올해의 아티스트'를 아시아 가수가 수상한 건 처음이야. 또 2022년 1월 열리는 최



넷플릭스 〈지옥〉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 반기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한류 콘텐츠 정말 대단하지 않아? 최근 우리나라 가수와 드라마의 성공 사례를 보면 K-콘텐츠의 신르네상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것 같아. 문화콘텐츠가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촉진과 국가 브랜드 제고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는 셈이지.**

고 권위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에선 '버터'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이름을 올렸어.

### 소비재 수출 촉진과 국가 브랜드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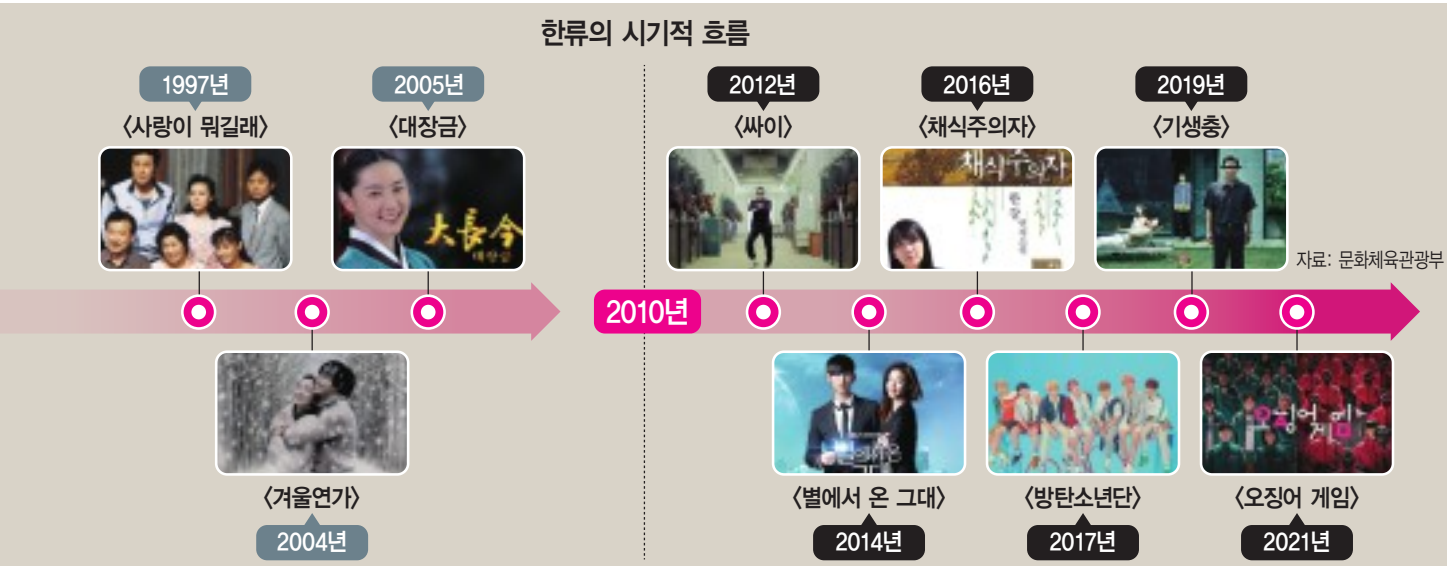
미국 잡지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는 2021년 12월 글로벌 트렌드를 이끈 50인을 선정했는데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과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을 뽑았더라고.

한류 콘텐츠 정말 대단하지 않아? 최근 우리나라 가수와 드라마의 성공 사례를 보면 K-콘텐츠의 신르네상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것 같아. K-콘텐츠 산업 규모는 세계 7위고 한류동호회 회원 수만 1억 명에 이른다고 해. 문화콘텐츠가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촉진과 국가 브랜드 제고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는 셈이지.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사실 문화산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어. 그런데 K-콘텐츠는 위기 속에서 반전의 드라마를 쏘아 올렸어. 비대면으로 인한 홈 소비 패턴의 보편화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통망 확대 같은 환경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영상콘텐츠(영화, 예능, 드라마)와 음악, 게임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지. 물론 업종별, 콘텐츠별 양극화라는 그늘도 있지만 문화콘텐츠 전체 수출은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훨씬 증가했어. '코로나19 대유행의 아이러니'인 셈이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 '2021 글로벌 한류 트렌드'(18개국 8500명의 해외 한류 이용자 조사, 2020년 10월)에서 우리나라를 연상하는 이미지 1위에 오른 건 K-팝(16.8%)이었어. 한식(12.0%), 한류스타(6.6%), 드라마(6.4%)가 뒤를 이었고.

아마 2021년 조사에선 〈오징어 게임〉 여파로 K-드라마가 1위에 오르지 않을까? 그럼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가수는?




빙고! 방탄소년단이 22%로 가장 많았고 블랙핑크(13.5%), 싸이(2.9%) 순이었어. 방탄소년단은 2018년 10.3%에서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선호도가 높아졌지.

### 2010년 중반 이후 한류 세계화 시작

다들 '한류', '한류' 하는데 도대체 한류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우선 태동기인 '한류1.0'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이야. 드라마 중심이고 아시아 위주로 소수 마니아가 열광했지. 1990년대 후반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가 중국에서 히트를 했지. 주인공 안재욱은 중국 최고 스타로 부상했고.

대만에선 〈가을동화〉가 시청률 1위를 기록해서 주인공 송승헌이 말 그대로 대박 났고. 일본에선 2000년대 초반 〈겨울연가〉의 대성공으로 배용준이 '욘사마'로 불리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 당시 욘사마 경제효과가 무려 3조 원으로 추정됐을 정도야.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K-팝을 내세운 아이돌 스타 중심으로 '한류2.0'이 형성돼. 아시아와 중남미, 중동에서 10~20대가 팬덤을 형성하지. 당시 동남아에선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 인기가 워낙 높아서 이들 그룹을 모방하는 팀까지 생겨나.

특히 이때부터 기획사가 전략적으로 키운 스타들이 상품화해 등장하고 대중문화 전반으로 진출하지. 일종의 공장 형태로 스타 배출과 한류 콘텐츠 생산이 이뤄지면서 규격화된 상품을 대량으로 빠르게 시장에 공급해 경쟁력이 높아져. 201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는 한류의 세계화가 시작돼서 2019년까지 이어지는데 바로 '한류3.0'이라고 할 수 있지. 팬덤도 전 세계로 확대되고.

### 2022년 신한류 진흥 예산 1조 178억 원

이런 흐름 속에서 문재인정부는 2020년을 '한류3.0'을 뛰어넘는 신한류의 원년으로 삼아서 종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어. 실제 정부는 2020년 2월 13개 부처와 12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한류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고 7월에는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어. 정부는 '한류3.0'의 바통을 이어받는 시대를 신한류로 정의하고 한류 콘텐츠 다양화와 한류 연관 산업 견인, 지속 가능한 한류 확산의 토대 형성 등 세 가지 지원 전략을 제시했어.

1997년부터 드라마를 위주로 시작된 '한류1.0', 아이돌 스타 중심의 '한류2.0', 한류 세계화가 본격화한 '한류3.0'을 지나서 이제 연관 산업으로 확장하는 신한류 시대를 개척한다는 구상이지.

정부는 2022년 신한류 진흥과 문화산업 육성 예산을 총 1조 178억 원으로 책정했어. 전년 대비 21.3% 늘어난 규모야. 구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 | 방탄소년단 트위터

**한류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콘텐츠 생산자의 창의력이 꽃피울 수 있도록 글로벌 패러다임에 맞춘 전략 방안을 마련해야 해. 또 음악, 영화, 게임 등으로 편중된 한류 콘텐츠의 다양성도 확보해야 하고.**

체적으로는 번역 인력과 수출 전문 인력 양성에 각각 20억 원, 한류 문화 축제에 92억 원, K-브랜드 한류 마케팅에 50억 원, 해외홍보관에 45억 원, 한류 박람회에 예산 20억 원을 배정했어. 특히 문화 전반으로 신한류가 확장하도록 다른 분야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야. 우리나라 미술의 국제화에 29억 원, 해외 박물관 한국실 운영 35억 원 등 신규 예산을 투입한 것도 이런 구상 때문이야.

한류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콘텐츠 생산자의 창의력이 꽃피울 수 있도록 글로벌 패러다임에 맞춘 전략 방안을 마련해야 해. 또 음악, 영화, 게임 등으로 편중된 한류 콘텐츠의 다양성도 확보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찾아온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듯이 한류 콘텐츠가 변화의 바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대항해 시대를 개척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자고. ◉

김정필 〈한겨레〉 기자

## K-콘텐츠 수출 10년간 연평균 13.9% 성장

**한류의 구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 한류1.0 | 한류2.0 | 한류3.0 | 신한류(K-컬처) |
|---|---|---|---|---|
| 시기 | 1997년~2000년대 중반 |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 2010년대 초반~2019년 | 2020년~ |
| 특징 | 한류의 태동 영상 콘텐츠 중심 | 한류의 확산 아이돌 스타 중심 | 한류의 세계화 세계적 스타 상품 등장 | 한류의 다양화 + 세계화(온라인 소통) |
| 핵심분야 | 드라마 | 대중음악 | 대중문화 | 한국문화 + 연관 산업 |
| 대상국가 | 아시아 | 아시아, 중남미, 중동, 구미주 일부 등 | 전 세계 | 전 세계(전략적 확산) |
| 소비자 | 소수 마니아 | 10~20대 | 전 세계인 | 전 세계인(맞춤형 접근) |

한류 확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조업 못지않다. 영국 글로벌시장조사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는 총 2조 4000억 달러로 미국·중국·일본이 1~3위이고 우리나라는 623억 달러(점유율 2.6%)로 세계 7위다.

분야별로 우리나라 게임, 음악, 영화, 방송 시장 규모는 전 세계 10위권 안팎이다.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국내 게임 산업 규모는 전 세계 4위이고 국내 방송(11위), 영화(7위), 음악(9위) 시장 규모도 10위권 안팎으로 규모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한류 열풍에 우리 문화콘텐츠 수출은 10년간(2010~2019년) 연평균 13.9%에 이르는 비약적 성장을 구가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이 100달러 증가할 때 소비재 수출은 248달러 증가하는 파급효과(2020년 기준)가 있다고 분석한다. 세계시장에서 K-팝을 비롯한 국내 방송·영화 등의 인기로 한국산 음향영상과 관련 서비스 수출액은 연간 9억 달러(2019년)로 세계 9위 수준(세계무역기구)이다.

한류는 1990년대부터 태동한 이후 분야가 다양화하고 지역도 다변화하면서 화장품·문화콘텐츠 등 소비재 수출을 촉진하고 관광객 활성화 등 연관 산업 성장까지 견인했다. 한류에 따른 소비재·관광 수출액(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16년 75억 6000만 달러에서 2019년 123억 1900만 달러로 증가했다. 한류 관광객(한국관광공사)도 이 기간에 136만 2000명에서 222만 3000명으로 증가했다. 한류가 문화·경제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인 것이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청와대

# ‘4월 위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까지… “오직 평화”

**문재인정부는 마지막 저무는 때까지 ‘일하는 정부’로 남고자 합니다. 한 정부의 국정 성과는 국민적으로 공유돼야 하고 국민적 자부심으로 축적돼야 합니다. 파도에 휩쓸리듯 사라지지 않고 계승되려면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야 합니다. 그런 바람과 함께 문재인정부가 겪었던 위기와 극복, 도약의 큰 발자취들을 담았습니다.** 〈편집자 주〉

**관계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남북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뒤엉켜 있는 것이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중심에 서서 실타래를 풀어나갔습니다.**

## 한반도 평화

"항모(항공모함) 3척 배치. 전쟁 1분 전."

2017년 4월 3일, 한 언론이 "외교안보 전문가 및 기업인들 사이에 돌고 있는 메신저 내용"이라며 전한 소식입니다. 실제로 누리소통망(SNS)에는 '4월 27일 전쟁'이라는 시나리오 글이 올라오고 금융가에서는 일부 외국계 기업들이 긴급 한반도 탈출 계획을 가동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던 때입니다. 물론 모두 허위였지만 그만큼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적색등, '4월 위기설'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는 불안을 타고 피어오르기 마련이니까요.

"한반도에서 또다시 참화가 벌어진다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걸고 저부터 총을 들고 나설 것입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한 문재인정부가 맞닥뜨린 최우선 절체절명의 과제는 한반도 위기관리였고 '평화'였습니다.

4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전쟁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했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 선언이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2020년에 이어 거듭 제안하면서 한 말입니다. '화해'를 얘기하려면 관계가 어느정도 우호적으로 무르익어야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입니다.

### 북핵 위기의 정점과 '신베를린 선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 행사 연설에서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강한 군사력을 강조하고 우리 측에 대한 엄포성 발언이 적지 않았지만 어쨌든 종전에 대한 의지는 내비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관계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남북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뒤엉켜 있는 것이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중심에 서서 실타래를 풀어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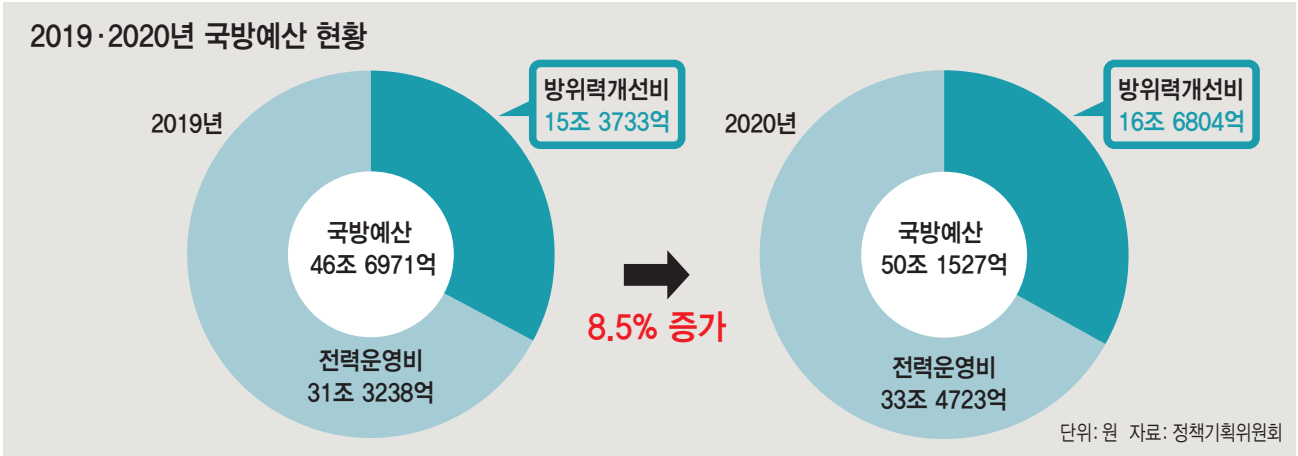
2016년에 두 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은 이듬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또 한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급기야는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북핵 위기가 정점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화 없이 평화로 가는 길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정부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2015년 말 개성에서 열린 차관급 대화 이후 남북대화는 끊어져 있었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사실상의 무시 전략으로 일관해 북미 역시 대화가 없었습니다.

우선 물꼬를 터야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의 기틀을 마련한 '베를린 선언'의 도시를 2017년 7월에 방문한 문 대통령은 새로운 한반도 평화 비전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신베를린 선언'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오직 평화'를 강조하면서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종전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신경제 구상,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명분과 계기가 절실했습니다. 열쇠는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세계의 선수들이 땀 흘리며 경쟁하고 쓰러진 선수를 일으켜 부둥켜안을 때 세계는 올림픽을 통해 평화를 보게 될 것"이라던 문 대통령의 희망은 현실이 됐죠. 남북 선수단은 평창에서 공동 입장을 했고 문 대통령을 만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습




니다. 평양에서 남북 합동공연이 열렸고 그룹 레드벨벳이 노래 '빨간 맛'을 선보이는 파격도 있었습니다. 다시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허리 숙인 대통령, 전단 100억 장보다 더 큰 효과"**

결국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이 열렸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상호 적대행위 중단, 군사적 긴장 상태의 완화, 남북한 불가침과 군비축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평화로 가기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전쟁 위기 상황을 1년 만에 반전시킨 소중한 열매였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뭉게뭉게 피어올랐고 서울 시내 유명 평양냉면집들에는 대기 줄이 더욱 길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5월 26일 2차 정상회담에 이어 9월 18~20일에는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순안공항에 환영하러 나온 북한 주민들에게 문 대통령은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누리소통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데 전단 100억 장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를 약속했고 남북 정상은 백두산 천지에 함께 올라 맞잡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남북이 최초로 군사력을 통제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립을 이어온 한반도의 군사 질서가 획기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당시 약속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방문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얼어붙은 북미, 다시 해빙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뿐 아니라 북미 관계가 핵심입니다.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으로 성사된 2018년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른바 '노딜'로 마무리되면서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럼에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이어졌습니다. 판문점에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이뤄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 번 사그라진 북미 대화의 불씨가 쉽게 살아나기는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 우리 정부는 다시 신발 끈을 조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방미 초청 정상으로 2021년 5월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양 정상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에 기초한 북한과 대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단절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직접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발표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발등에 불 떨어지듯 절박했던 코로나19 백신 부족 해소에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도

합의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는 다시 평화로 향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신선이 복원돼 핫라인(직통전화)이 다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놓고 우리 정부와 미국 등 관련국들의 정부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도 적대적 일방통행만을 고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간절함이 어떤 방향으로 모아질지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평화의 전제는 강한 힘, 국방예산 큰 폭 증가**

평화는 강한 국방력을 전제로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대화는 이 원칙을 적극적으로 구현한 바탕 위에 이뤄졌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40조 원가량이던 국방예산이 2020년에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로 그 이전 9년간 4.7%에 비해 약 1.5배 상승했습니다.

2021년 4월에는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 KF-21 시제 1호기를 출고해 세계에서 13번째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됐습니다.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지침은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우리 미사일의 개발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제한하기로 한 약속으로 1979년 체결된 것입니다. 42년 만에 이를 벗어나 비로소 '미사일 주권'을 확실히 한 셈입니다.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한반도 상황은 불안에서 안도와 희망으로, 다시 허탈과 실망으로 이어졌으나 끝내 다시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궁극적 가치고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해온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2021년 10월 7일 통일부의 평화경제 토크콘서트에서 "국경이 열리면 단언컨대 한반도는 전 세계 여행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비에 사용되는 돈을 공장이나 고속도로, 학교와 병원을 짓는 데 활용한다고 생각해보라"고도 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그 길에서 항상 엔진을 켜뒀고 지금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착지는 여전히 멀지만 한 발씩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다 함께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

글 정책기획위원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그 길에서 항상 엔진을 켜뒀고 지금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착지는 여전히 멀지만 한 발씩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다 함께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함께 나오고 있다. | 청와대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지

- 2017. 6.24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첫 제안
- 2017. 7.6 문재인 대통령 독일 순방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만날 용의" 밝힘
- 2017. 8.15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공동참가 평화올림픽 제안
- 2017. 9.3 북한 6차 핵실험(함북 풍계리)
- 2018. 1.1 북한 김정은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신년사)
- 2018. 2.9 평창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김여정, 올림픽에서 문 대통령 방북 초대장 전달
- 2018. 3.29 남북정상회담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
- 2018. 4.27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채택
- 2018. 5.24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 2018. 5.26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
- 2018. 6.12 북미정상회담(싱가포르)
- 2018. 9.18 남북정상회담-평양-표어 : '평화, 새로운 미래'-9·19 평양공동선언
- 2018. 8.20~26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금강산)
- 2019. 2.27~28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 2019. 5.4 북한 미사일 발사
- 2020. 9.23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
- 2021. 9.22 한반도 종전선언 거듭 제안(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 종전선언을 위한 물물교환

● 김수한
헤럴드경제 기자
(북한학 박사·한국기자협회 남북통일분과위원회 간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가장 큰 외교·안보상의 업적은 무엇이 될까? 대통령 임기 중 전례없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역사상 최초인 북미정상회담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두 번이나 치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았다.

어디 그뿐인가? 대한민국 정상으로서 최초로 북한 주민 수만 명이 운집한 대형 경기장에서 연설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 함께 가서 두 손을 맞잡기도 했다. 비록 이뤄지진 않았으나 북측 정상의 방남 약속을 받아냈고 그 때문에 남북 정상이 동반으로 제주도 한라산 정상에 다녀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남북이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일촉즉발의 장소인 최전방 감시초소(GP) 남북 각 10곳을 남북 군인들이 동시에 철거한 일도 있었다. 남과 북의 군인들은 휴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해 양측을 오가며 서로의 GP가 제대로 철거된 게 맞는지 검증 절차까지 밟았다. 상호 검증 초기 상대방이 속임수를 쓰는 건 아닌지 의심하며 언쟁까지 벌이던 양측 대표단은 시간이 갈수록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때론 농담을 주고받으며 과거 그들이 한 핏줄, 한 가족이었음을 상기했다.

## 남북관계는 '점 연결하기'

돌아보면 모두 꿈같은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일장춘몽이었다고 말하기엔 이룩한 성과가 너무 뚜렷하고 실질적이다. 이들 성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라지지 않고 단단히 결속되며 현재의 더 큰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영향을 줄 것이다. 마치 아이폰을 개발한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그 위치까지 오른 배경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점 연결하기'(Connecting Dots)처럼 말이다.

대학 중퇴자인 그가 미국 최고 명문대 중 하나로 꼽히는 스탠퍼드대 졸업식에 연사로 초청된 장면 또한 이례적이었지만 그가 이날 졸업생에게 설파한 '배고프고 어리석은 채로 남아 있으라'(Stay hungry, stay foolish)는 주제의 연설은 미국 대학 졸업식 역사상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연설로 꼽힌다. 과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들어올리고 있다. | 한겨레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남북은 2018년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미 사실상 종전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요한 것은 6·25전쟁 참전국이자 'G2'로 불리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종전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거는 하나의 점으로 남아 있지만 그 점들을 하나하나 연결하면 오늘의 나가 된다는 것이 연설의 핵심 포인트다.

남북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미 지나간 빛바랜 과거로 인식하는 역사적 장면은 거기서 멈춰 있지 않는다. 과거의 특정 장면은 오늘의 어떤 순간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 임기 중 찍힌 점들은 미래를 위한 복선이다. 그리고 그러한 점들을 가장 최신의 시점에서 하나로 묶은 결과가 종전선언이다. 종전선언이 실현되면 그야말로 문 대통령이 임기 중 이뤄낸 외교안보상 최대의 치적이 될 것이다. 종전선언이라는 업적을 이룬 대통령을 칭송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통령이 수많은 점을 찍고 수많은 돌을 놓은 결과 비로소 드러나고 있는 한반도 평화로 가는 징검다리의 윤곽을 반갑게 맞이하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종전선언이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그 즉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휴전협정을 공식적으로 대체할 협정은 평화협정이다. 종전선언은 휴전협정과 평화협정 사이의 어떤 정치적 영역인 것이다.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팽팽하던 균형을 '평화' 쪽으로 조금 더 기울이는 기술적 장치에 가깝다.

### 종전선언을 향한 확고한 의지

남북은 2018년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미 사실상 종전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요한 것은 6·25전쟁 참전국이자 'G2'로 불리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종전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일단 중국과 미국은 모두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 반응을 내놓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최근 북한의 '선(先) 비핵화'를 전제로 한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12월 2일 중국 톈진 시내 한 호텔에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나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며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으로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잇따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방의 견제 구도 완화를 위해 '약한 고리'인 우리나라와 접촉면을 늘리고자 애쓰는 형국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12월 8일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12월 7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30여 명이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 없는 종전선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조 바이든 행정부에 발송하는 등 종전선언 반대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을 향한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12월 2일 청와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만나 종전선언 지지를 당부했고 12월 7일 화상회의로 열린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영상축사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종전선언 지지를 재차 호소했다. 결국 종전선언에 미국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가 관건인 셈이다. 과연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동의받는 대가로 미국에 무엇을 건네야 할까?◉

# 산 자여 따르라!



▶1980년 5월 광주 금남로에서 시위에 나선 시민이 버스를 사이에 두고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상무관에 계엄군에 의해 숨진 광주 시민의 시신이 안치돼 있다.
| 5·18기념재단

"소위 민주주의란 나라가 민주 인사를 죽이다니 이 같은 일이 세계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지금으로써는 상상하기 힘든 민주주의를 향한 이 절규는 41년 전 광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하 5·18)에 참여한 한 광주 시민은 자신의 일기장에 1980년 5월의 처참한 심정을 이같이 기록했다. 당시 국가보안사령관 신분이었던 전두환 씨는 5·18 진압 작전을 결심한 최종 책임자로 미국 국무부 비밀전문에 나온다. 살아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전 씨가 2021년 11월 23일 향년 90세로 숨졌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입에선 '사과'란 말 한마디 없었다. 5·18은 시대의 아픔이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인권·평화가 깃든 5·18정신은 광주를 넘어 전 세계 민주화 운동사에 길이 보존돼 있다. 유네스코는 2011년 5월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이란 명칭으로 5·18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올렸다.

세계기록유산은 인류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보존하려고 1992년 신설됐다. 5·18 발생과 군사 진압, 진상 조사, 보상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향해 외친 시민의 장엄한 서사는 사료의 다양성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꿋꿋이 눌러쓴 사료이기에 그 소중함을 더 한다.

### '1980년 인권기록유산…' 세계기록유산 선정

5·18은 1980년 5월 18~27일 광주에서 일어났다. 1979년 10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뒤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고조됐다. 하지만 권력 부재를 틈타 신군부가 군사쿠데타를 다시 일으켰다. 이에 반정부 시위가 끓어오르자 전국으로 계엄령이 확대됐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 역시 시위에 동참했고 신군부는 이를 진압하려고 공수특전단을 급파했다. 군은 시민을 무자비하게 공격해 열흘 동안 165명이 사망했다. 실종자가 76명, 부상자가 3383명에 이르렀고 102명은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2010년 1월 구성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는 같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5·18민주화운동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 실체는 가공된 자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용이 담긴 1차 사료로 규명될 때 불편한 진실을 오롯이 직시할 수 있다. 세계기록유산에 오른 5·18 기록물의 가치가 소중한 이유다.

은 해 3월 유네스코 본부에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여러 차례 수정·보완을 거쳐 심의 통과를 성사시켰다.

세계기록유산에 오른 5·18 기록물은 편철 약 86만 쪽, 흑백필름·사진 2000여 장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주제는 총 아홉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국가기관이 생산한 5·18 자료와 군사법기관 재판 자료, 시민의 성명서·선언문·취재 수첩·일기, 피해자 병원 치료 기록, 미국의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 증언 등이다.

5·18정신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나선 필리핀과 태국, 중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다른 국가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향상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도시빈민협의회 와르다 하피즈 사무총장은 "5·18 후 이뤄진 한국의 인권 성장은 아시아 인권운동의 모범"이라고 평가했고 스리랑카의 실종자기념회 단데니야 자얀티 회장은 "5·18은 인권투쟁에서 영감의 원천"이라며 "(동아시아에 만연된) 관습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행태를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5·18은 지금도 진행형**

5·18이 견지한 문제 해결의 다섯 가지 핵심 원칙인 ▲진상 조사 ▲가해자 처벌 ▲명예 회복 ▲보상 ▲기념사업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의 보상 규칙을 결정할 때 모범 기준이 되기도 했다.

1980년 고등학교 1학년이던 고 문재학 씨는 5·18 마지막 날 계엄군에 희생됐다. 그렇게 막내아들을 잃은 김길자 씨는 한국방송 프로그램 〈시사 직격〉 인터뷰에서 "재학이는 지금도 폭도야. 전두환이 스스로 발포 명령했다고 하면 누명이 벗겨질 텐데 그 말을 안 하고 죽었잖아. 너무너무 불쌍해. 이렇게 죽었는데 누가 죽였다는 사람은 없잖아. 내 자식은 누가 죽였을까"라고 말했다.

5·18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 실체는 가공된 자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용이 담긴 1차 사료로 규명될 때 불편한 진실을 오롯이 직시할 수 있다. 세계기록유산에 오른 5·18 기록물의 가치가 소중한 이유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과거를 반복해야 하는 벌을 받았다." ◉



● 김정필
〈한겨레〉 기자



인천 경인면옥 평양냉면



# 추운 날 먹어야 제맛인 '평냉'

냉 / 면 /

"평양 사람이 타향에 가 있을 때 문득문득 평양을 그립게 하는 한 힘이 있으니 이것은 겨울의 냉면 맛이다. (중략) 꽁꽁 어른 김치죽을 뚫고 살얼음이 뜬 김장 김칫국에다 한 저 두 저 풀어 먹고 우르르 떨려서 온돌방 아랫목으로 가는 맛! 평양냉면의 이 맛을 못 본 이요! 상상이 어떻소!"

1929년 잡지 〈별건곤(別乾坤)〉에 김소저가 쓴 '사시명물 평양냉면' 중 발췌다. 뜨끈한 국물도 모자랄 판에 냉면이라니.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내 유명 면옥(麵屋)들은 여전히 성업 중이란 사실. 붉은 깃발은 사라졌지만 손님들의 파란 입술마다 국수 가락이 드리운다.

냉면은 본시 겨울 음식이다. 물론 시원한 맛에 여름에도 먹는다. 하지만 진정한 맛은 겨울에 더 난다. 가게마다 다르겠지만 냉면을 한번 들여다보자. 크게는 면과 육수, 그리고 꾸미다. 평양냉면 기준이다.

평창을 무대로 한 가산 이효석의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기억한다면 메밀이란 작물이 어느 계절에 영글고 또 언제쯤 수확하는지 알 수 있다. 여름이 저물면 꽃이 피니 일러야 가을 중순이다. 국내 최대 메밀 재배지인 제주에선 11월 중순이나 돼야 수확한다.

잉여 농산물은 언감생심이던 시절, 가을에 수확한 메밀을 이듬해 여름까지 남겨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늦가을에 메밀을 거둬 빻은 메밀가루를 곤궁한 겨울에 두고 먹었다. 여름냉면은 나중에 나온 것이다.

육수 사정은 더하다. 동치미를 담가야 냉면을 말아 먹는 육수가 생긴다. 동침(冬沈)이다. 단맛 든 월동 무를 쓰고 살얼음이 끼어야 제대로 맛이 난다.


태백 평양냉면 수육

**냉면은 본시 겨울 음식이다. 물론 시원한 맛에 여름에도 먹는다. 하지만 진정한 맛은 겨울에 더 난다. 가게마다 다르겠지만 냉면을 한번 들여다보자.**



● 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장

간혹 육수에 썼다는 꿩도 마찬가지. 꿩은 보통 겨울철 눈이 한가득 내린 날에 잡으러 간다.

'증언'도 부지기수다. "냉면은 겨울 계절 음식으로 평양이 으뜸"이라며 "메밀국수에 무김치, 배추김치를 넣고 그 위에 돼지고기를 얹어 먹는다"는 글이 문헌에 나온다. 1849년에 펴낸 민속 해설서 〈동국세시기〉다.

달달하니 감칠맛 나는 육수에 구수한 메밀 면을 말고 냉면무를 함께 집어 쪼르륵 빨면 정수리 끝까지 죄어드는 차갑고도 '쩡'한 맛이 난다. 분명 입으로 삼켰지만 뒤늦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메밀 향은 코를 위한 것이다.

마지막 한 모금까지 후련히 한 사발을 비우고 나면 그리도 든든하다. 여름이 아니라 손님 대접도 제대로 받으니 더이상 바랄 바 없다. 이름난 냉면집이 곳곳에 생겨나니 오한 들기 전에 당장 찾아가볼 일이다.◉

## 전국의 냉면 맛집



**★인천 경인면옥** 원래는 광복 전인 1944년 서울 종로통에서 창업했다고 한다. 70년이 넘었다. 1946년 현재의 자리에 둥지를 틀고 인천 냉면의 맹주로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집이다. 동치미만 쓰는 본래의 평양냉면과는 달리 고기가 풍족했던 인천에서 진화한 고기 육수 평양냉면이다. 고기 향이 짙다. 여기에다 시원한 맛을 더하는 동치미의 적절한 배합이 맛의 비결이다. 불고기와 녹두전, 만두 등 이북 음식을 함께 맛볼 수 있어 더욱 좋다.



**★진미평양냉면** 이른바 '강남 냉면'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는 집이다. 얇지만 씹을수록 메밀 향을 끝까지 뿜어내는 면발이 인상적이다. '수돗물' 육수 속에 진하게 고기 향이 배어 있으니 향이 좋은 집이다. 수육과 달걀, 무, 오이 등을 푸짐히 올린 꾸미까지. 보기만 해도 든든하다. 저녁에는 만두와 어복쟁반 등으로 선주후면(先酒後麵)하겠다는 주객으로 들끓는다.



**★부원면옥** 값비싼 냉면집들의 열전 속 '서민 냉면'의 자리를 지키는 집이다. 서울 남대문시장 내에서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녔다. 뽀얀 육수에 굵은 면을 말고 꽤 두툼한 돼지수육을 올려준다. 달달한 동치미와 구수한 육수에 씹는 맛까지 좋은 면발이 들었다. 시장통 냉면답게 꾸미 인심이 좋다. 매콤새콤한 닭무침도 물리칠 재간이 없다.



**★태백 평양냉면** 평양만큼 추운 태백고원에서 제대로 즐기는 '겨울냉면'이다. 거뭇한 면발에 진한 육수와 동치미 국물을 부어 말아낸다. 진하고 구수한 육수지만 섞여 들어간 동치미의 시원한 맛을 숨길 수 없다. 밍밍하지 않고 간이 적당히 들었다. 아삭한 무김치와 탄력 좋은 면발이 제법 잘 어울린다.

# 전광석화처럼 낚아챈 찰나의 움직임



에드가르 드가, '발레 수업', 캔버스에 유화, 85×75cm, 1871~1874, 오르세 미술관 소장
| ⓒwikipedia commons, public domain

발레는 인체에 깃든 미학을 온몸의 동작으로 표현하는 무용 예술이다. 몸과 손발을 움직이는 동작만으로 예술적 경지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창조 행위 중에서 가장 본능적인 장르라 할 수 있다. 발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19세기 프랑스 화단의 실력자로 이름을 떨친 화가 에드가르 드가(1834~1917)다. 부유한 은행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둔 이른바 금수저 출신인 드가는 그 시절 다른 화가들과 달리 어릴 때부터 돈 걱정 없이 좋아하는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복을 타고났다.

인상주의 화가들과 친분으로 인상파 화가로 불렸지만 정작 그는 야외에서 그림 그리기를 꺼렸다. 선천적인 녹내장 때문이었다. 화가에게, 특히 인상파 화가에게 야외 사생(寫生)에 나설 수 없는 점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터. 여기에서 드가의 천재성이 발휘된다. 우선 그는 실외가 아닌 실내 장면을 타깃으로 삼았다. 고질적인 시신경 결함이라는 신체적 약점에서 벗어나 최대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였다.

승부수는 찰나의 순간적인 움직임, 소재는 발레였다.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드가에게 상류사회의 사교 활동인 발레는 친숙한 예술이었다. 그가 발레를 그림의 주제로 선택한 데는 발레에 대한 친화적인 입장이 분명 영향을 끼쳤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드가는 평소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감, 특히 사람의 움직임에 관심이 많았다. 발레야말로 인체의 움직임만으로 역동적 조형미를 빚어내는 육체 예술의 결정판 아닌가? 드가가 발레 그림에 예술적 승부를 걸게 된 가장 큰 동력이다.

**발레리나 자연스러운 일상 그림에 담아**

특이한 점은 드가는 무대 위에서 환호와 갈채를 받는 발레리나의 화려한 공연 모습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드가는 연습 장면이나 무대 밖에서 쉬거나 피로에 지친 모습, 발레 감독의 일장 연설이 지겨운 듯 졸거나 하품하는 모습 등 발레리나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그림에 담았다.

무대 밖 이면에 감춰진 발레리나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포착함과 동시에 당시 사회에 만연한 부르주아 스폰서(후원자) 문화의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서였다. 드가가 그림 속 발레리나들 틈에 정장 차림의 신사를 슬쩍 끼워 넣은 것도 그런 의도에서였다.

드가 발레 그림의 특징은 한 편의 스냅사진을 닮은 점과 특이한 구도에 있다. 다양하게 잡아낸 인물들의 찰나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스냅사진을 보는 것 같은 효과를 자아낸다. 등장인물들이 한 방향으로만 포진돼 있다거나, 심지어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게 묘사한 방식은 사진에서나 볼 수 있는 구도다. 극한의 순간적인 동작을 카메라 렌즈를 방불케 하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포착하고 생생한 운동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드가 특유의 독창적인 시도가 낳은 결과였다. 드가의 눈은 카메라 렌즈나 다름없었다.

한때 법률가를 목표로 법학을 공부하기도 했으나 21세 때 국립미술학교에 입학하면서 화가의 길을 걷기로 한 드가는 정통 미술교육과 인상주의 기법, 일본 판화 우키요에와 사진술 등을 두루 섭렵하며 일상 속 움직이는 물체의 특징을 전광석화처럼 낚아채는 거장으로 발돋움했다.

'발레 수업'은 드가의 발레 그림 중 가장 유명한 대표작. 텅 비어 있는 화면 중앙에 지팡이를 짚고 권위적인 자세로 서 있는 사람이 보인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발레리노이자 안무가 쥘 페로(1810~1892)다. 막 발레 수업을 끝낸 듯한 20명에 가까운 발레리나는 죄다 왼쪽 벽면 쪽으로 치우쳐 서 있거나 앉아 있다. 파격적인 구도다.

구도의 파격은 왼손을 허리에 댄 채 등을 보인 발레리나를 그림 맨 앞에 커다랗게 부각한 장면에서 절정에 달한다. 맨 오른쪽 하늘색 리본을 허리에 맨 소녀의 뒷모습 일부는 아예 잘려나갔다. 신체 일부를 생략함으로써 오히려 운동감을 살린 역발상이다. 클로즈업 효과와 함께 우키요에에서 볼 수 있는 기법이다. 산만하고 어수선한 발레리나들의 모습은 페로가 딛고 서 있는 휑한 마룻바닥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순간, 팽팽한 긴장감으로 돌변한다. 절묘한 대립 구도가 아닐 수 없다. 화면 구성의 단순성을 단숨에 희석하는 장치다. 드가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소소한 움직임 하나하나 정교하게 되살려**

찰나의 움직임을 좇은 드가의 섬세한 감각은 발레리나들의 몸짓, 표정에 고스란히 묻어 있다. 맨 왼쪽, 피아노 위에 걸터앉은 소녀는 왼손으로 등을 긁고 있고 바로 옆 겨우 얼굴만 보이는 소녀는 귀고리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생각에 잠기거나 발레 동작을 취하는가 하면 잡담을 나누고 기지개를 켜는 등 앳된 소녀들의 동작과 모습, 시선이 모두 제각각이다.

무대 아래 발레리나들의 자연스러운 일상과 애환을 기록사진 찍듯이 꼼꼼하게 잡아낸 드가의 관찰력과 집중력이 놀랍다. 다양한 인물의 소소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이토록 정교하게 되살린 그림은 드가 이전에 없었다. 순간 포착의 대가라 불러 마땅하다. 드가가 굳이 무대 위가 아닌 무대 밖 장면에 초점을 맞춘 것도 정신적 긴장과 압박감에서 해방됐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 본모습이 드러난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오른쪽 끄트머리에 발레복이 아닌 일반 의상 차림의 나이 든 여성 몇 명이 눈에 들어온다. 발레리나들의 어머니로 짐작된다. 딸을 유명 발레리나로 키우기 위해 헌신적인 모성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은 발레 수업 현장에서도 여전하다. 이들 중 일부는 자녀 사랑의 극성스러움이 도를 지나쳐 돈 많은 스폰서한테 줄을 서기까지 한 당대의 부도덕한 실상을 드가가 점잖은 방법으로 꼬집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하나, 실내 공간의 답답함을 뚫어주는 존재도 빼놓을 수 없다. 벽 가운데 뒤로 나 있는 창문이다. 그림에서 창문은 한가운데에 위치한 데다 멀리서도 바깥 풍경이 환하게 보일 정도로 큼지막해 실내 공간의 외연을 넓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탁 트이게 하는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다.

83세로 장수한 '발레 화가' 드가는 파리 몽마르트르 가족 묘지에 묻혔다. ◉



● **박인권** 문화 칼럼니스트
PIK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전 〈스포츠서울〉 문화레저부 부장과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팀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시와 사랑에 빠진 그림〉 〈미술전시 홍보, 이렇게 한다〉, 미술 연구용역 보고서 '미술관 건립·운영 매뉴얼' '미술관 마케팅 백서' 등이 있다.

## 공감 리뷰




지난 2년 여 동안 전 세계를 엄청난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우리는 K-방역으로 명명되는 코로나19 대응체계로 위기를 극복하고 위상을 드높인 점에서 세계 국가들이 선망할 정도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이 됐습니다. 소개해주신 강원도 평창군보건의료원과 지역주민, 리조트업계 등이 힘을 합친 민관합동 방역관리 사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현장 우수 사례로 손꼽을 만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 또한 우리가 지금껏 쌓아온 위기 관리능력과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또 한 번의 코로나19 극복의 역사를 써나가리라 확신합니다.

김동석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만 해결되면' 글을 보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2020년에 이어 연년생 아이들 대입 준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혼자만의 시간과 여가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과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는 믿음으로 힘든 수험생 아들의 매니저와 주부 역할까지 완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자신을 짓누르던 스트레스가 해결돼도 계획을 실행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람 사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모습을 간절히 원한다면 '나중에'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라는 김병수 의사의 조언처럼 자식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부모 마음을 헤아려주지도 않는 만큼 지금부터 자기계발을 위해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사는 엄마이자 아내가 되겠습니다.

오은경 부산 연제구 연제로

## 사진 공감



코로나19로 인해 이번에도 전국 새해 해맞이 행사가 전면 취소되고 비대면 해돋이 행사로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일찌감치 동해안으로 가족들과 거리두기를 지키며 일출을 보고 왔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바닷가가 아닌 한가로운 해변에서 가족들과 오붓하게 아직 조금 남은 한 해를 뒤돌아보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돼 새해 첫날 예전처럼 많은 분들이 전국 해돋이 명소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 그 날을 기다리며 올 한 해 마무리합니다.

김선화 경기 화성시 동탄 광역환승로

## 디지털 〈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 gonggam.korea.kr
- www.facebook.com/wegonggam
- www.instagram.com/wegonggam
- content.v.kakao.com/3094
- www.youtube.com/user/weeklygonggam
- post.naver.com/mcst_pr
- blog.naver.com/mcst_pr
- ridibooks.com
- digital.kyobobook.co.kr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리뷰'와 '사진 공감'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2월 22일까지 이메일(gonggam@hani.co.kr)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께 기프티콘(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kidc.e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질병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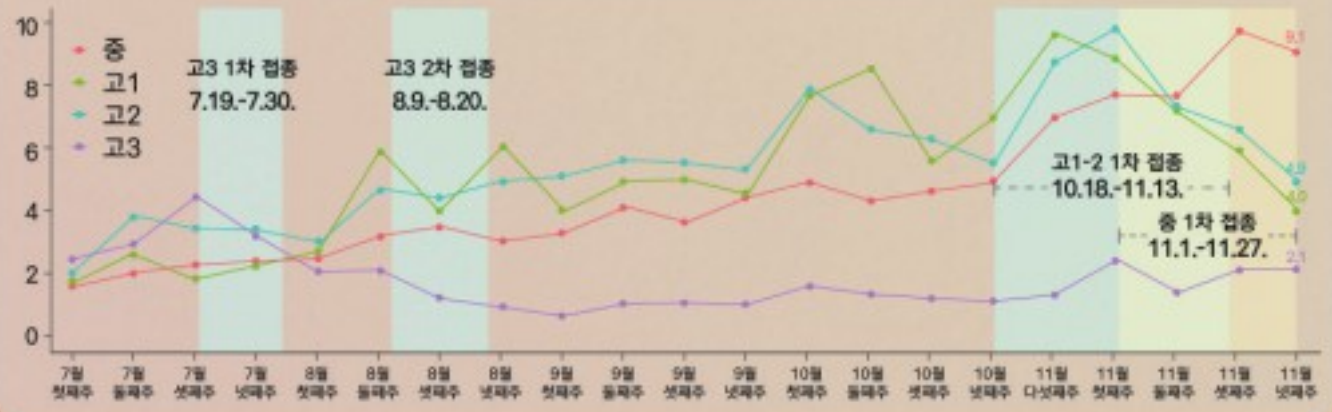
## 전파력이 높은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한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예방접종을 통한 청소년 감염예방 효과가 분명히 확인됩니다.

접종률이 높은 고3은 발생률이 1·2차 접종 완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인 확진자 증가 상황에서도 다른 학년에 비해 낮은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종 진행중인 12~17세 중에서도 접종률이 높은 고 1·2의 경우,
11월 1주를 정점으로 발생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




16~18세를 분석(7.19~11.13일)한 결과 '미접종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기본접종완료군'에 비해 4.8배 높았고,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예방효과는 79.2%로 나타났습니다.

접종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23일(화)부터 추가 사전예약을 시작하였고,
내년 1월 22일(토)까지 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날짜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예약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언제든지
당일 접종(의료기관 예비명단, 민간 SNS)이 가능합니다.